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약해지고 타락 해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므로 세상 끝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로 키워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6월 4일 (토) 제 158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공립교에서 다시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다!

월드, 캘리포니아 SB-1457 상원 통과 배경으로 초등학교 교사, 청소년들의 기도 모임 소개

일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정치 현장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라져 버린 기도와 성경 읽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과 같은 기도 모임들이 전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원은 지난 5월 23일, SB 1457 SB-1457: Pupil instruction: excused absences: religious or moral instruction(the Parental Choice for Released Time Credit Act)을 3개월간의 진통 끝에 투표로 통과시켜, 하원에서 최종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들(유치원부터-12학년)이 학교 수업시간에 학교 캠퍼스 밖에서 기독교 교육을 포함

한 종교 수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립학교에 기독교 교육 등을 포함한 종교 교육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캘리포니아 놀워 초등학교에서와 같이 선생으로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Public school prayer warriors: Public Schools School employees from teachers to janitors are asking God for mercy on their colleagues and the students they serve).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읽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풀뿌리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놀워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12년을 보낸 에이프릴 레터(April Reutter)는 한마디로 "지쳤다"고 말한다. 그녀가 맡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결혼 가정들이나 우범 지역들에 살고 있어, 교실 안에 들어와도 좀처럼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학습에도 영향을 끼쳐, 성적 역시 겨우 낙제를 면할 수준이었다.

레터는 마치 자신이 삼중 경기 선수를 독려하는 코치와도 같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신체적, 학문적 그리고 정서적 요구들을 충족시켜 상급 학년으로 진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녀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바로 아이들의 문제들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문제점들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작은 기도 모임을 인도했다. 그러나 얻어지는 것은 없었다. 모두가 "너무 지쳐 탈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단호하게 교직을 내려놓고 신학교에서, 그녀가 항상 소원했던 사역(Cross-cultural mission)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하루는 임시 교사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클래스에서 다시 만나, 방과 후에 피자 가게에서 만나기로 하고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 아이가 일어

나 "선생님은 달라요"라고 외쳤다. 깜짝 놀랐지만 그녀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라고 침착하게 말했다. 소년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바로 교실은 박수 물결로 뒤덮였다. 레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이프릴, 바로 여기서 사역 지이자 커뮤니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2008년 그녀는 다시 풀타임으로 교직에 복귀하면서 전혀 새로운 마음 즉 항상 소망 해온 생각, "가르친다는 것은 일이 아니라 바로 교차-문화적 사역으로의 소명"으로 시작하게 된다. 선생님들의 라운지, 전에는 항상 선생님들의 불만들과 저속한 언어와

욕설들이 난무해 영혼이 말라가는 장소가 이제는 에이프릴의 신앙을 나누고 간증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변하게 된다. 그녀는 아프리카 단기 선교에서 경험한 기억들이나 간증을 나눴다. 동료 교사들이 낙심하거나 지쳐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같이 기도 하자고 하면 모두가 동참했다.

다른 여 선생이 곧바로 그녀의 기도 모임에 합류하게 되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녀들은 운동장과 교실을 돌면서 학생들의 책상들, 선생님 의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복사기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보호, 평안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기도했다.

(3면으로 계속)

"영적 안보" 위한 문화전쟁 전세계로 확산!

이코노미스트, UN총회서 불거지는 동성애 반대 이슬람회의기구, 러시아 동향 보도

미국 국내 정치의 이른바 "문화 전쟁" 코드가 이제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 열리는 HIV/에이즈 퇴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유엔 내에서 불거진 논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집트를 필두로 한 57개 이슬람 국가들의 단체인 이슬람 회의기구(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가 11개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단체의 회의 참가를 반대하고 나섰고, 이에 미국, EU, 캐나다가 크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랜스젠더의 HIV 감염률이 일반인에 비해 49배나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전지구적 에이즈 퇴치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사무총장에게 호소 서한을 쓰기도 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소위 '영적 안보'논리로 자국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동성결혼이나 LGBT 문화로부터 지켜내려는 지구촌의 움직임이 보도한다(At the UN, new global fault-lines over moral matters are emerging.)



어떻게 보면, 동성결혼에 대한 이슬람권과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UN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영국의 외교와 동성애 연계 정책을 저지하려는 몸짓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동성애를 폄박하는 국가들에 '인권'이기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많이 했다.

특히 2013년, NBC방송의 '투나잇쇼'에서 "인종, 지역이나 성 혹은 성적 취향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국가를 초월

한 기본 도덕의 위반"이라며, 러시아의 동성애 반대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문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니다"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게이, 레즈비언 등 성적 소수자들을 폄박하려는 국가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동성애를 탄압하고 있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사례를 거론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거친 모습과 매력에서 연대의식
가져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UMC총회 세계선교부 17년 사역
김종성 목사 회귀 혈액암 진단



2016 Fall / 2017 Spring

여수론 기독교학교 학생모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나와 나를 찾는
하나님의 품”

학교안내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입니다. 믿음과 지식, 앎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입니다.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경험 중심의 통합적 교육방식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학생들이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방식과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말씀과 지식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경험한 말씀과 지식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모집 대상
(Students)

9-12학년이 되는 선교사/목회자 자녀
(신실한 크리스찬 자녀 지원 가능)

지원 자격
(Requirements)

-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신앙고백과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사람
- 기술사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사람
- 선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

전형 방법
(Admission Process)

1차 서류 전형

- 입학 지원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학부모 동의서, 기술사 생활 동의서
- Field Work 동의서 각 1부
- 추천서
-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사진 3매
- 서류 전형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차 학생, 학부모 면접
전화 면접 가능, 날짜 및 시간은 개별 연락

문의처
(Contact Info)

315-474-8346
info@jeshurchristianschool.org

6:33 MORNINGS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마태복음 6:33-

3P

-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erspective)
- 하나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

3S

-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 순전한 삶 (Sound Life)
- 순전한 지식 (Sound Teaching)

세상의 영광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입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교육의 근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나라의 주된 신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세워줍니다.

순전한 복음은 건전한 성경관과 신학에 바탕을 둔 신앙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삶은 앎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성 및 생활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지식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JESHURUN CHRISTIAN SCHOOL

www.jeshurchristianschool.org

info@jeshurchristianschool.org 315-474-8346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교장 지용주 박사

현 시라큐스 한인교회(PCUSA) 담임목사
유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WMC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부의장
선교사자녀 학교 설립협력기구 기구장
Advisor member of Northeastern Seminary's Advisory Council



시론

사슴나무골에서(30): 거주 존엄사 법안 통과와 파장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몬타나 주 다음의 5번째로 소위 선택적 안락사 법안(End of Life Opt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는 6월 9일부터 시한부 환자의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거주자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불치병 환자로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과 정신적 질병 없이 안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아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일단 10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시행 전부터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거세지면서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안락사(euthanasia or mercy killing)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살을 돕는(assisted suicide) 의료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나 어떤 제 3자,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직접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죽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본인이 의사표명을 했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까운 가족이나 법적 위임권을 받은 사람이 약물 주입을 은밀하게 집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칫하면 환자의 고통을 도와준다는 명분이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살인죄를 묻고 오는 참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물이나 주사를 받아서 스스로 투여하는 것만 허용하는 것이 선택적 안락사 법안이고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거주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인 혼란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예상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윤리적, 종교적, 영적인 문제들로 인한 우려와 논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도 드문 일인지만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례들은 이 법안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사실상 천문학적인 의료비와 보험 등을 고려한 비용과 예산 절감만을 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종교계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선택적일지라도 안락사 시키는 이 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말기암이나 불치병에 걸려 한시적 삶을 살고 있는 환우나 간호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환자는 반드시 믿음만으로 치유 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신앙도 지양해야 합니다. 마치 치유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위험한 신학은 환자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비기독교적인 교리일 뿐입니다.

불치병이나 말기암과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우들에게는 오히려 완화치료(Palliative Care) 등의 방법으로 통증을 최대한 줄여드리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완화치료를 시한부 환자가 마지막 남은 여생을 고통 없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호스피스 간호사, 그리고 채플린 등이 한 팀이 되어, 신체적 사망만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공호흡, 기도삽관, 등의 과도한 생명 연장 의료행위를 금지한 채, 자연스러운 임종까지 환자 자신과 간호하는 가족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살피며 돌보아주는 가장 바람직한 전인적 의료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임의적으로 끊는 어리석고 조급한 모든 행위는 살인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존엄사 법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거주 내에서 그 병폐로 인해 법적 기한 전에 조만간 폐기되어 모든 논란이 사라지길 기원해봅니다.

tdspark@gmail.com

거친 모습과 매력에서 연대의식 가져

뉴스위크,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끌리는 이유 분석(하)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거친 모습과 매력에서 연대의식을 갖는다. 트럼프의 정책 지식이 놀라울 정도로 알파한 건 사실이지만 그의 포퓰리스트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매력은 그의 세월에 관한 생각이나 지출 제안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최소한 본능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그런 매력은 유럽의 우익 운동이 한 세기 이상 사용해온 선전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미국의 성년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트럼프의 능력도 유럽의 떠오르는 우익당 지도자들과 비슷하다. 리스 교수는 20세기 초 유럽의 우익향적 포퓰리스트들이 "이전에 소외됐거나 기존 정치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21세기 들어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같은 유럽의 극우정당도 비슷한 계층을 공략한다. 또 트럼프처럼 유럽의 현대 우익 지도자들도 "남성 유권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고 이트웰 교수가 말했다.

의 반(反)엘리트적 면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교양 없고 저속한 언어를 구사한다. 트럼프가 유세 중 사용하는 언어는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이라고 언론의 놀림을 받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하는 정치인은 예상 외로 많다. 이트웰 교수는 "포퓰리스트는 공략하려는 계층에 보통사람의 일상

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트럼프와 2016년 유럽의 우익 지도자들 사이엔 한 가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의 막대한 재산이다. 트럼프는 억만장자 라이프스타일을 과시하지만 유럽의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이 서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트웰 교수는 "영국의 우익 독립당 대표 나이젤 파라지는 선술집

의 카바피나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같은 아프리카 독재자의 막말과 상당히 닮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남아공 출신인 노아 진행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아프리카 대통령으로 제격"이라고 농담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아프리카 정치를 가르치는 요나탄 모스 교수는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이나 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은 트럼프의 이미지 같은 부유함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서민, 특히 지금까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집단을 돌볼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둔 발상이다."

물론 정치 시스템에 대한 만연한 환멸감이 없다면 이런 메시지는 힘을 얻지 못한다. 지금 미국 정치가 보이는 정세 현상을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겪은 경제 붕괴에 비교하는 건 지나칠지 모르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기존 질서의 부패와 정치인들의 흥정과 허점한 타협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포퓰리스트적이고 국수주의적 매력으로 본능에 호소 반(反)엘리트적 면 보여주기 위해 저속한 언어 구사 기존정치의 환멸감 바탕위에 모든 정치담론의 단순화

이트웰 교수는 "60%가 넘는 남성의 지지를 받는다. 그들 중 다수는 실적을 두려워하는 육체노동자거나 사회적 변화로 기술을 잃고 일자리를 위협 받는 근로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자신도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을 민주주의 정치로 끌어들이겠다고 자주 말한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미국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심화되는 소외 수준을 잘 보여준다.

미국 전체 유권자의 62%가 '신념과 가치가 공격받는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지지자 중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91%나 됐다. 또 트럼프 지지자의 90%는 '공직자들이나 같은 사람의 생각에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 같은 독재자도 비슷한 계층을 선동했다. 리스 교수는 "대중을 경멸하는 경향을 보이는 지적 엘리트의 지배에 분개하는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흔히 자신

적인 언어로 얘기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상류층의 학구적인 문장 대신 짧고 선동적이며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을 사용하면 자신이 기대권이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쉽다." 이것이 트럼프가 가진 매력의 기본 요소다.

포퓰리스트는 말하는 방식만 단순화하는 게 아니다. 리스 교수는 자신이 연구하는 우익 정권의 공통 주제가 '모든 정치 담론의 단순화'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전부 다 기초적인 이분법으로 단순화시킨다. 물론 '우리' 대 '그들'의 구도가 바탕이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그들'을 공격 표적으로 삼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진다. 이트웰 교수는 "그러면서 자신을 다른 것으로 포장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예컨대 '그들이 이민자, 특히 멕시코 출신과 무슬림이다. 나치 독일에선 '그들이' 유대인이었다."

리스 교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렇게 요약했다. "복잡한 말은 필요 없다. 뭣이 문제인지 우린 안다. 해결책도 안다. 필요한 것

에서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고 예를 들었다. 계급이 주된 구분 기준이고 재정근축의 충격이 상당한 유럽에선 그런 소속감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미국인은 자본주의에 유럽인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기부'라는 사실에 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또 다른 대륙인 아프리카의 정치인들과 닮았다. 미국 코미디언 스티븐 체널의 정치풍자 프로그램 데일리 쇼 진행자 트레버 노아는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일부 선언이 리버

라고 트럼프가 제2의 히틀러나 무솔리니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각본이 비슷하다고 해서 결과도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가 해외에서 '제조된'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굉장한 아이러니다. 트럼프의 양복과 넥타이가 바로 그렇다. 지난 3월 CNN 방송은 트럼프의 양복과 넥타이는 중국산, 셔츠는 방글라데시산이라고 보도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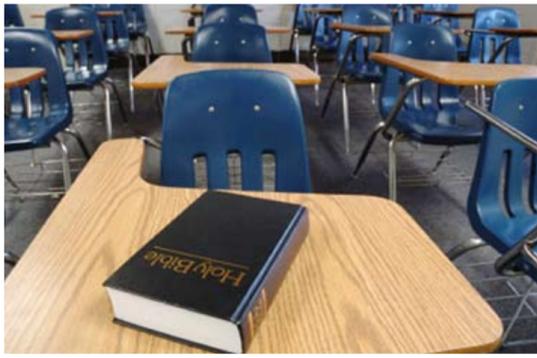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공립교에서 다시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그러자 다른 교사들이 그녀들을 자신들의 교실들에 와서도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 3년도 되지 않아, 항상 교사 휴게실에서 불평과 불만들만을 털어놓기 일수였던 6명의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 두게 됐고, 3명이나 되는 신입 크리스천 교사들이 보충되는 바람에 에이프립은 드디어 학교에서 '성경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 기도의 열매들을 맛보기 시작한 그녀는 하나님에게 더 큰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게 된다. 따라서 그녀는 잘 알지도 모르는 놀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전화를 걸어, '놀이를 위한 기도회'에 초청했다. 5개의 교회들이 동참했고, 50여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2009년 '1차 놀이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고,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 리더십들이 증가하게 됐다. 보안관 사무실의 책임자, 교육구 감독,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시장까지 참여해, 지난 해 기도

모임에서는 에이프립의 1학년 초등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나누는 프로그램까지 하게 됐다



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며 역사다. 에이프립은 "기도는 전 학교와 놀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선생님들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라푸엔테 초등학교(Temple Academy)에서 수리

와 청소를 하고 있는 레이 히노조스(Ray Hinojos)는 다른 8명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교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믿지 않는

그러면서 교육구 하급 직원에게 평가 절하돼 불만이 가득한 다른 동료들의 입을 통해 불평들을 듣는다.

히노조스는 교사들과는 다르지만 모두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동일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아론과 훌로 비교한다(출17:8-16). 아론과 훌은 모세가 맡은 사역을 할 수 없지만, 모세가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들어 지탱해 준 것처럼, 기도로 학교를 뒤덮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겠다고 히노조스와 동료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직업상,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보다 일

찍 출근해 주변에 사는 심대들이 마시고 버린 찌그러진 맥주 강통들이나 사용됐던 콘돔들 그리고 마약 봉지들을 말끔하게 치운다. 그가 지켜보는 선생님들 중 일부는 너무 지쳐있다. 병든 남편과 자살을 시도하는 아들 그리고 폐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둔 선생님들의 께한 눈에서, 진한 아픔을 본다.

그러면서 교육구 하급 직원에게 평가 절하돼 불만이 가득한 다른 동료들의 입을 통해 불평들을 듣는다.

히노조스는 교사들과는 다르지만 모두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동일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아론과 훌로 비교한다(출17:8-16). 아론과 훌은 모세가 맡은 사역을 할 수 없지만, 모세가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들어 지탱해 준 것처럼, 기도로 학교를 뒤덮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겠다고 히노조스와 동료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직업상,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보다 일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설교준비(중)

신학자 바르트의 말대로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유는 설교는 영적 선포이면서 삶의 길잡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설교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양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길을 밝히고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현장을 외면하면 안된다.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은 설교의 틀 구성을 결정한다. 필자의 경우 상담, 만남, 뉴스, 독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컨텍스트)을 확인하고 이해한다.

기도 없이 서둘러 설교를 만들 때가 있다. 그럴 경우 영락없이 설교는 건성피부처럼 건조해진다. 그러나 기도로 영감을 얻고 빛을 들면 충진된 배터리처럼 과란불이 켜진다.

주일 저녁예배가 끝나면 모든 예배를 마쳤다는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 주일 설교를 고민한다. 부지런한 설교자들은 1-2년분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경우는 메모와 준비된 자료들을 절기와 행사, 구약과 신약, 교리와 생활 등으로 분류하고 연간 계획을 잡곤 했다.

어느 날 은혜로운 설교에 감동한 사람이 스피컬에게 "오늘 설교는 얼마 동안 준비했는가"하고 묻자 그의 대답은 "평생 동안 준비했다"였다고 한다. 자료 준비가 잘 되면 식단이 풍성한 밥상이 되지만 자료가 빈약하면 인스턴트 대용식의 한계를 넘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할 때 심상한 식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칙을 지키며 설교 만들기

정해진 제목과 본문을 설교로 완성하는 날은 토요일이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겹칠 때도 있고 응급한 사건이 돌발할 경우를 대비해 금요일 오후에 설교 작성을 시작한다. 400자 원고지 12매를 채우면 28-30분 설교가 가능하게 된다. 필자의 경우 일생동안 고집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원고지에 필기도구로 쓴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생활화된 지금도 설교 원고 작성만큼은 기계의 힘을 거치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쓴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설교 전문을 구어체로 예화까지 그대로 작성한다.

필자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설교의 원고 작성을 권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원고지에 그대로 써서 작성한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작품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작곡가가 오선지에 자신의 악상을 옮겼을 때 연주가 가능하고 작품으로 남는 것과 같다. 필자의 경우 30여 권이 넘는 설교집은 작성한 원고 그대로 편집한 것들이다. 설교 원고 작성은 설교자의 문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감정입음을 막기 때문이다. 원고 없는 설교, 메모 설교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감정입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경우 생각지 않았던 말을 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행동을 취하게 된다.

원고 작성이 끝나면 밑줄을 긋고 주를 달아가며 열 번 이상 읽고 숙지한다. 작성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은 전달과 소통을 막는다. 원고 없는 즉흥설교는 전달 목표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 설교를 원고지에 옮겨더라도 원고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충분한 예습이 필요하다. 읽고 또 읽노라면 자신이 선포해야 될 주제와 방향을 확인하게 된다.

필자도 때로 예화를 사용한다. 예화란 설교 전달을 위한 보조도구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예화는 최근 사건일수록, 그리고 사실적인 것일수록 좋다. 1백년 전 사건,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타 종교 인물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일 경우 실명을 거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예화는 길이와 횟수를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얽힌 이야기나 간증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은 쉽게 싫증을 느끼게 된다.

iamcspark@hanmail.net

"영적 안보" 위한 문화전쟁 전세계로 확산

(1면에서 계속)
영국은 일찍이 2012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0월 말 호주 퍼스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에서 대외원조를 성 소수자 보호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전통적인 가치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반발도 만만찮다. 캐머런 영국 총리의 발표 후 우간다,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잇따랐다.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지난달 말 동성애는 아프리카 및 기독교 가치와 상충하는 것으로, 캐머런 총리의 발언은 "악마적인 것"이라고 비난

필두로 중국이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가세하며 촉발된 것이다. 이들 연합은 작년에도 반



서구에서 LGBT 권리를 외교 무대의 주요 아젠다로 앞세움에 따라, 보수주의 국가들의 연합도 더욱 세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파워 대사는 LGBT 문제를 각별히 여겨, 이를 소재로 다룬 뮤지컬에 동료 유엔 대사들을 초청하

세계적 움직임에 반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두 세력이 자유주의적 물결에 맞선다는 이해가 일치하자,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앞세우는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논함에 있어서도 "영적 안보(spiritual security)"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종교/신념의 안보(faith security)"를 앞세우는 이집트 정부의 레토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와 이집트가 국제 무대에서 취하는 이러한 전략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념을 가혹하게 대하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한 인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천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명에 이릅니다. 2014년 23명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슬람 과격파 테러 강경 입장 러시아, 이슬람권과 친동성애 움직임에 반대세력 구축"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당시 국제 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결국 2012년부터 불거진 영국과 미국 주도의 친동성애코드 외교 정책에 맞서, 사회적 보수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연합, 즉 OIC와 러시아를

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를 뒤집으려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5월 19일 유엔이 정한 "호모포비아 반대일"이 었기 때문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기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테러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동성 결혼과 LGBT 권리를 둘러싼

부터 파문공까지 다양한 종교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단기간 구금된 사람들도 있었다.

SCS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Southern California Seminary(SCS)는 미국 학교로는 처음으로 **심리상담학 석사(MACP)**와 **결혼 가족 치료사(MA in MFT)** 그리고 **심리상담학 박사(Doctor of Psychology)**를 한국어 과정(한/영 이중언어)으로 개설하였습니다.



SCS 는 미 연방정부 TRACS 인가 학교로서 The California Board of Behavioral Science와 California Board of Psychology 에서 인증 받은 학위과정 입니다. * I-20 발행-유학생 환영

SCS의 Behavior Sciences 대학원은

- 석사 및 박사 과정 후 CA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 면허를 취득하시면 직접 클리닉 개업 가능합니다.
- 졸업생들은 전문상담사, 임상 심리 치료사, 가정사역자 등 비영리 기관, 병원, 교회 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 동급의 다른 학교 학비와 비교해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실 수 있으며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보조신청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이 가능하며 부부장학금, 교회 및 기관 사역 장학금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상담, 약물중독 상담, 전문코칭 등 여러 상담 관련 교육 과정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NEW

- MA in Christian Ministry (신학부 석사과정: 평신도, 직분자, 교회 리더를 위한 1년 석사과정 개발) 한국어 신학부 : 안국환 교수 kukwhan.ahn@socalsem.edu, 619.201.8982

심리학교수님 초빙

박사학위 및 라이선스 소지하신분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samuel.lee@socalsem.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00 Wilshire Blvd. Suite 700 Los Angeles, CA 90057
www.socalsem.edu/korean

이사무엘 samuel.lee@socalsem.edu 323.529.3339 / 323.205.5880
이윤진 yunlee@socalsem.edu 323.248.1648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아킬레스

교우가 어느 날 다리를 절룩거리며 나타났다.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 녀석과 농구 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위해 함께 뛰어 올랐다가 발뒤꿈치를 채었는데 그 때 약간 다쳤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 보라고 하니,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발뒤꿈치를 매만진다. 그런데 며칠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진찰결과 아킬레스가 거의 끊어졌다는 소견과 함께 조금만 늦게 왔으면 영영 다리를 절게 되었을 거라고 했다고 한다.

아킬레스, 왜 발뒤꿈치를 아킬레스라고 할까? 그것은 오랜 역사적 신화가 있다. 아버지 크로노스를 추방하고 신들의 왕이 된 제우스는 그 역시 아들들에게 지배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신탁을 받는다. 바다의 님프 테티스를 인간인 팔레우스와 결혼하게 한다. 그 결혼식 초청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를 제외시켰다. 에리스는 화가 나서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 황금사과를 던졌는데,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문구가 씌어 있었다. 세 여신인,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는 그 사과가 자기 것이라고 서로 주장했다. 제우스는 이런 미묘한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아 제우스의 양떼를 돌보던 파리스에게 판결권을 넘겨버렸다.

대통령이 사형언도 받은 자들의 집행 결재를 미루는 것처럼, 그러자 세 여신들은 파리스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유혹했다. 저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면 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헤라는 권력과 부를, 아테나는 전쟁에서 영광과 명예를,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얻게 해주겠다는 어느 것 하나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약속이었다. 파리스는 결국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그녀의 보호 아래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갔다. 그는 그곳에서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큰 환대를 받았다. 당시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는 절세미인으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그녀를 설득하여 트로이로 데려왔다. 사실 파리스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었는데 파리스가 장차 국가의 큰 화근이 된다는 불길한 예언 때문에 남몰래 타지로 보내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랑하는 아내,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긴 일 때문에 저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내를 찾기 위해 메넬라오스는 그리스의 족장들을 설득하여 전쟁에 참여했다. 이들 중에 오디세우스도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참전을 거부하는 다른 족장 중, 특히 최고의 명장 아킬레우스를 잠전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막강한 트로이를 상대하기가 버거웠기 때문이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는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저승의 강 스틱스에 담갔는데 그의 발뒤꿈치를 잡고 거꾸로 담갔기에 그 부분만은 불에 쪼이지 않았다. 그래서 강인한 몸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발뒤꿈치만은 그렇지 못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약점이었다. 신의 위치에 있던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이 트로이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란 신탁을 알고 참전을 막으려

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아킬레우스가 결정적으로 전쟁이 참가하게 된 원인은 이렇다.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참가시키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서게 했다. 그러자 트로이군은 아킬레우스가 출전한 줄 알고 놀라 도망을 쳤다. 그 때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당부하는 말을 잊고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다가 트로이최고의 용사 헥토르와 맞서게 되었다. 헥토르를 돌보던 아폴론이 파트로클로스의 투구를 벗기고 무기를 떨어뜨리게 함으로 그는 결국 헥토르의 창에 찔려 전사하고 말았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파트로클로스는 5촌 당숙)를 장사한 후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서게 되었다. 결국 그는 헥토르를 죽이게 되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매어 끌고다녔다. 이 때 트로이의 늙은 국왕 프리아모스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여 부성애에 감동한 아킬레우스는 시체를 내어주었다. 그 후 아킬레우

스는 트로이 병사가 쓴 화살을 치명적인 부분이었던 발뒤꿈치에 맞고 죽었다. 우리에게도 아킬레스가 있다. 어떤 이는 돈, 어떤 이는 여자, 어떤 이는 명예, 그렇다면 나에게 아킬레스는 어디인가? 신화는 상상력의 산물만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했을 뿐이다. 고로 현대인들도 교훈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최고의 영웅 아킬레스가 지옥의 제 2옥에 있다고 쓰고 있다. 또한 전쟁의 원인이었던 절세의 미녀 헬레네, 또 클레오파트라 등등도 같은 곳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것이 그녀들의 아킬레스였지 싶다. 바울은 트로이의 역사적 장소를 전도의 전초기지로 설정하였다. 딤후4:13,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에게도 있고, 당신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아킬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푸/른/초/장

김선중 목사
(베들크리함미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신자는 선행을 해야 하고 신자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고 대중이 이해하는 안됩니다. 성경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고 대중 이해하는데 그 치면 심령 속에 참되고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11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것이 그러

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환란과 핍박 속 24:3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언제 성전파괴가 있고 또 주님의 재림과

중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오늘 본문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엄중한 교훈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상대로 선행이 최후 심판의 근거라고 강조해서 가르치셨을까요? 본문은 신자들에게 단순히 선행을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고 환란과 핍박이 극심해지는 종말에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중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본문은 선행을 격려하는 말씀이고 결국 선행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비성경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제는 언제나 신자를 가리켰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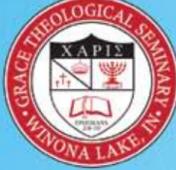
아니라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복음전도자들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9:4, 22:7, 26:14)고 책망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

박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일까요? 이 의인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6면으로 계속)

마지막 때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마태복음 25:31-46)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2016년 5월 졸업식

- 1. 졸업식(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내)
- 2.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6년 5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William Male Center(신학교 건물)
- 3. 총장주관 만찬(President's Luncheon)**
 일시: 2016년 5월 6일(금) 12:00-1:30 pm (졸업식 리허설 후)
 장소: Westminster Hall(웨스트 민스터 홀)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딤후3:2), 가장 우선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말로서 극심한 이기적인 세대가 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대와 방불하며 예수를 알지도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시대가 말세에 도래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이라는 말 세현상과 예수를 알'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존귀한 예수로 변화된 세상
 미국에서 살다가 선교지들을 방문해보면, 문화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저들 가운데 아직은 상대방에 대해 배려와 관용의 모습이나 공중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기가 어

울 수 있는 협력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이들에게 더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아름다운 어머니의 삶도 오직 그의 생명의 시간을 가족과 나누었기에 그 생애가 참으로 송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의 인생을 찾겠노라고 황홀이혼도 불사하는 세대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간 스스로의 존귀함으로 내어버리는 것이다.

인생의 존귀함은 생명과 삶을 나눔과 섬김에 있는 것이다. 그 나눔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피와 물과 살을 완전히 다 나눠버린 것이 그리스도이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유를 취한 적이 없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예

고 핑계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찾으시는 심방이 얼마나 많은가?

반납사상은 회복의 증거

구원에 대해 성경의 두 가지 대표적 표현은 '예수를 믿으면'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이다. 마귀는 몰래 담을 넘어 영혼에 침투해오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정면으로 들어오시고 문을 두드리신다. 그를 영접하게 됨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진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이 없어진다. 자신을 반납하는 수준으로 변화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는 성경적인 반납사상에 의해 삶의 전이적인 변화가 주어진다. 구원은 철저한 세상의 소유사상

무엇을 반납하고 나눌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참된 구원은 그 삶의 열매에 있어서 분명하게 소유에서 나눔으로의 회복을 나타낸다. 나눔은 가장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세상속의 열매이다. 무엇을 반납하고 나눌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반납의 대상이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가 되었음을 본다. 그 실망감의 중심에 나눔과 섬김, 사랑을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교회회의 거룩한 자리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유와 반납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11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희 교회는 아주사 부흥운동의 불이 불듯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 목사님과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교회에도 다시 부흥의 불이 붙어야 하는데 미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버 양성금

A: 현재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으로 부흥의 불이 다시 불고 영적 각성운동이 미국교회에 다시 오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해야겠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테버네클교회를 시무하는 짐 심발라 목사가 쓴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앞뒤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미국교회에 대한 3-4가지 경고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크리스천 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미국 크리스천이 79.5%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부풀려진 숫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주일에 거의 교회를 가지 않거나 오직 예수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천의 실제숫자는 놀랍게도 7-9% 정도라는 것입니다. 진짜배기 신자는 7-9%라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천의 숫자도 놀라게 감소하는데, 미국을 기독교국가라

복음적 미크리스천 7-9%...삶 변하지 않고, 목회자수도 감소

고 하지만 실제 크리스천은 10명에 한명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라면 앞으로 30년 내에 복음주의 크리스천은 25명중 한명 꼴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교회를 다닌 뒤 '삶이 실제로 변한 크리스천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교회의 새신자의 숫자와 출석률, 세례 받는 숫자, 헌금액수가 모두 떨어졌는데 미국 복음주의 교단의 핵심자는 1948년 이래로 최저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40%가 "교회 다닌 뒤로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5명 중에 3명은 예배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 다녔던 1/3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크리스천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이라도 읽는 사람은 5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재난의 또 다른 징조입니다.

넷째, 거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목회자들의 감소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5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그리고 너무 지쳐 영적 탈진으로, 도덕적 실수로 목회자를 사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든 신학교 졸업생중에 80%가 5년 안에 하고 있는 목회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목회중인 목사의 50%도 다른 일자리가 나타나면 당장 떠날 만큼 낙심해있는 통계입니다. 미국 목회자들의 좌절의 가장 큰 원인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들교회)



구원은 소유에서 나눔으로의 회복

-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

려운 일을 종종 만나게 된다. 더불어, 이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존귀함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무질서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이 존귀하게 될 때, 복음이 주는 자유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 마침내 그 선교지도 사람 사는 세상-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지으신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그런 복된 땅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의 상식으로 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의 급진적인 변화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표징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과연 그렇지 않은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세상정육 속에서 삶의 질곡 같은 환경 속에서 북마전 같은 인생여정을 지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늘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는 말세현상의 분명한 징조가운데 동의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좇는 그의 마음에 과연 자비와 관용이 흐르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으로 뿔뿔 뭉친 굳게 닫힌 여러고성과 같을 때, 그는 명목적이며 교리적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풍성하고 부요한 그리스도인의 부요함들은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세의 이기적인 욕심에 갇힌 연약한 인생이 그 무한한 세상 정육에서 해방되는 길은, 더 가지고 모으는 데 있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으로서의 진실된 나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곧 나눔을 믿는 사람

오늘날 자녀교육의 왕도가 '네 앞 가림이나 잘해라'는 것이 되어짐을 본다.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유유상종이어서 철저히 이기적인 아이 옆에는 역시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아이들로 인의 장막이 형성될 것이다. 서로를 세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한 몫 챙기려는 목적중심의 아이들이 평생의 인맥이 된다는 것은 심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세상의 기준에서는 모자라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아이들에게는 역시나 함께 도

수를 믿고 좇는 사람의 정체를 결국은 나눔과 섬김을 받고 순종하는 이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원은 소유에서 나눔으로

성경의 삭개오의 주님만만 사건을 보면, 한 인생의 구원에 담긴 참된 회복의 열매는 나눔과 소유의 문 제임을 생각하게 한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한다. 지나온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철저히 세상에 속한 삶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다짐의 결과 그의 소유는 이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마치,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기뻐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삭개오는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 삭개오가 그와 같이 나눔의 사람이 되고 나니, 예수님이 선포하신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참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시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은 이런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신다.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참된 구원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도록 반납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목적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한 인생을 구원하시면서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이다. 장로교 목사이기 이전에 고백적 예절론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필요충분한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라. 주님이 여러고를 찾아가셨다. 이것은 우연히 누구를 만남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음을 알게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유의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반납함으로 주님이 쓰시는 인생, 주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위함이다.

주님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소유에서 놓임 받게 하시는 분이시이다. 제자를 찾아 만나는 분이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이란 관대 주를 찾을 수 있겠나? 주님이 찾아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도 주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오는 것이지, 내가 문을 열고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심방도 사실은 그냥 가는 것이 맞다. 바쁜 시대 가운데 심방에 대해 중요성을 간과하고, 심방 받는 집에서 식사도 거의 없어지고 후에는 심방목회자가 집에서 떠나기도 전에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미국식이라

에서 반납사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인생은 나눔만 되어도 존경을 받는다. 아무리 약해도 자신의 것을 쉬 잘 나누는 사람에 대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본다. 하물며, 생명을 드린 주님의 나눔과 섬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너무나 분명한 열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구원은 철저한 반납사상이다. 나의 것은 없다는 고백이다. 주님 외에는 더 좋은 것도 더 필요한 것도 더 집착할 것도 없다는 고백이다. 이것이 회복의 증거가 된다. 반납이라는 단어는 왜 사용하는가? 빌려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과 욥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

우리에게 욕심과 소유의 사상이 사라지고, 반납 사상이 들어오면 세태를 거스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된다. 삭개오에게 나타난 반납사상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들로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시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은 이런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신다.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참된 구원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도록 반납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욥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환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신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임(욥1:21)을 고백하며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다. 한나를 보라. 서원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 가운데 얻은 아들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돌리고 반납하는 그의 심령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성숙한 성도의 전경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마10:37절에 "아비나 여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마10:38)이라고 말한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단순히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죽음일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지위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널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널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고 하시며 생명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온전한 반납은 가장 큰 영광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주님의 철저한 소유가 되어야 한다. 삭개오뿐 아니라, 믿음이 선진들 뿐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이다. 나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됨으로, 세상의 소유를 주님께 반납하고 나눔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

나누고 섬기고 반납하면... 그렇게 살면 말할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을 성경은 약속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보같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반납의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됨(마10:39)을 증거한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반납하고 포기한 사람에게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인도하심이 따를 것이다.

davidnjon@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연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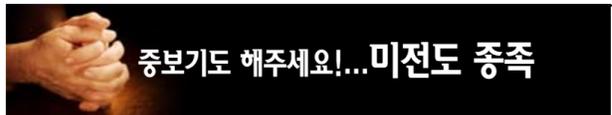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1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2 교회(기관) 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5 사택 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
8 Web Add.	http://
9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0 표시를 하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서부 라와(WESTERN LAW)A



서부 라와족은 중국 남쪽 윈난성(윈난성)의 산과 계곡 지대에서 살고 있다. 라와족은 "블랑(Blang)"과 "바(Va)" 두 부족으로 나뉘어진다.

서부 라와족과 태국의 동부 라와족이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 간의 방언은 유사한 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서부 라와족의 인구는 점차로 감소했고 생존에 적합한 땅을 찾아서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더 높은 고지대속으로 점점 더 서쪽으로 갔다. 1965-1976년에 이르는 중국의 문화혁명의 기간 동안 6천만 이상의 학생, 공무원, 이주 농민, 실직자 등이 경제적 이유로 국경지대로 보내져 정착하게 됐다. 라와족은 소수 민족으로서 중국내 다른 민족의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라와족은 뛰어난 금속 기술자로 알려졌다. 라와족의 부족으로 그들의 생산품은 다른 지역에 거의 수출되지 못했으며, 그들의 고

립은 자신들의 전통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했다.

삶의 모습 전통적으로 서부 라와족은 가족간에 땅을 분배하는데 분리된 땅은 매매할 수 없다. 가령, 마을의 어떤 주민이 외부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 그가 소유했던 땅은 마을의 땅이 된다. 그러나 1956년 이후로 라와족의 영토는 모두 중국 공산 정부의 소유가 됐다.

계곡의 라와족보다 고지대에서 거주하는 라와족의 생활수준이 대체적으로 더 낮은 편이며 서부 라와어 방언만 통용된다. 허용된 지역에서 라와족은 쌀과 소금에 절인 차, 야편을 재배한다.

물건들을 나를 때 아직까지도 등에 이거나 동물들의 등에 실어 운반하지만 요즘 들어 서부 윈난성에서의 수송 수단은 점점 발전

하고 있다. 각 마을마다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실은 트라이클이 들어오며 농부들의 생산물을 멀리 떨어진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다.

전통적으로 라와족은 마을의 남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우두머리로 뽑는데 마을을 대표하는 수장이 된다. 그러나 1949년 중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산당에 의한 통치 체제가 실시돼, 국가는 성(provinces), 관구(districts), 시(cities), 현(counties), 구(regions), 동(townships), 지역민(local peoples) 등으로 구분됐다.

중국에서는 한 가구당 한 자녀만 낳을 수 있는 출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부 라와족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한도 내에서 라와족은 두 자녀 이상을 낳을 수 있다. 라와족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티벳인에 이어 두 번째로 문맹률이 높은 민족이다.

신앙 1960년 프랑스 선교사 보고에 의하면 라와족은 북부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야만적인 와(Wild Wa)" 부족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서부 라와족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불교의 의식은 그들의 야만성을 개선시키고 있다.

서부 라와족의 반 이상이 애니미즘 같은 원시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라와족은 자신들의 집,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고장과 철광석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주술 치료사들을 강하게 신뢰하며 많은 영혼들은 고대 전쟁 영웅의 혼령이라고 믿는다. 서부 라와족의 48% 이상이 불교도다. 고지대보다는 계곡의 원

주민들이 애니미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애니미즘의 영향을 받은 불교 의식을 거행하는 애니미즘적 불교도다.

필요로 하는 것들 서부 라와족의 대부분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와족은 그들의 새 민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한 라와족이 애니미즘적 불교도가 된 것처럼 애니미즘적 크리스천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서부 라와족에게는 영화 "예수"나 활용될 수 있는 어떠한 기독교 방송도 없으며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지도자도 없다. 다만 아주 적은 소수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11개주,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 놓고 정부에 소송 제기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11개 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등 11개 주는 25일 텍사스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이 번 지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바마 정부가 전국의 직장 학교를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위한 연구실로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번 지침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아이들과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주 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과 관련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학교에 성전환자 정책과 관련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헌법을 짓밟아 문맹고 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벗 주지사는 이전에도 성전환자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따른 바에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미 법무부 역시 소장을 검토해보겠다고만 밝혔다.

앞서 연방 정부는 지난 13일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 소수자 차별법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법적 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에 11개 주가 지침을 둘러싸고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사우디에 기독교 성지?... "이브의 무덤은 전설에 불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개혁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사우디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국적의 관광객에게 문을 열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브의 무덤' 등 유대·기독교 유적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와 관련된 유적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 히즈르 고고 유적지가 있다. 이곳은 요르단 페트라 남쪽에 있는 나바테아(Nabatea) 문명지로 BC 1세기-AD 1세기 시절 무덤과 기념물로 이루어져 있다. 나바테아인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돔을 차지하는 등 신약 시대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요르단 페트라와 연계한 성지순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사우디 관광이 자유로워진다면 1순위 여행지는 '라오즈산'이 될 것이다. 이 산은 모세의 '시나산'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다. '떨기나무'의 저자인 김승학씨가 발안해 더 유명한 이 산은 최근까지 성서고고학 분야에서 적은 논쟁거리를 던졌다. 김씨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시나산은 이집트가 아니라 사우디(미디안 광야)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라오즈산 부근은 군사 지역으로 일반인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곳이 관광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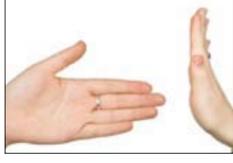
개발된다면 이집트의 시나이산과 흥해를 돌아보고, 사우디로 넘어가 라오즈산을 여행하는 순례 코스가 열릴 수 있다.

'이브의 무덤'은 아담의 '배필' 이브가 묻힌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제다 인근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교계 전문가들은 그저 "전설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경에도 등장한다. 홍순화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은 모두 세 곳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두마'(창25:14, 대상1:30)로 이스마엘의 아들 이븐이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지금의 '두마 알 잔달(Dumah al Jandal)'과 동일시된다. 둘째는 '데마'(욥6:19)로 지금의 '타이마(Tayma)'와 동일하다. 대상(隊商)들의 고향으로 스바와 함께 기록됐다. 셋째는 '드단'(창10:7, 대상1:9)으로 '알 울라(Al Ula)'와 같다. 이사가 선지자는 아라비아에 대해 경고하면서 아라비아 수출에 유속하는 드단 대상들을 언급했다(사 21:13).

난민 소년, 종교 이유로 여성 교사와 악수 거부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 교사의 손을 잡기를 거부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스위스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스위스 북부 바젤란트주 다일에서 여성 교사와 악수를 하기를 거부한 시리아 난민 형제에게 주정부가 악수를 강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전했다. 만일 아이들이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모는 벌금 5000스위스프랑을 물게 된다.

스위스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수업 시작 전과 종료 후 악수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예절이다. 애초 이 학교에서는 해당 아이들에게 예의를 적용했다. 14세에서 16세 사이로 알려진 이 형제는 이슬람 교리상 가족이 아닌 이성과 신체적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성 교사와 악수를 거부했다. 형평성을 위해 학교 측은 이 아이들이 남성 교사와도 악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내려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스위스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시민당 소속 시모네타 소마루가 법무장관은 "스위스 문화에서 교사와 학생이 악수를 하는 것은 중요한 관습"이라며 난민 학생들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 젤프 스위스 교원노조 위원장 역시 "학칙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번 조치는 잘못된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비칠 수 있다"면서 "난민 아이들 역시 살아가면서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료들과 악수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풍이 일자 학교 측은 지방 정부에 결정을 맡겼다.

지난 25일 바젤란트주 주정부는 "통합과 성평등이 공공선인데 반해 학교 측의 결정은 학생들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아동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 정부는 악수를 하도록 하는 게 해당 아동들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했으나 이 조치가 이슬람의 중심교리를 직접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아이들의 미래 사회생활에서도 악수가 중요한 사회적 제스처가 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NYT는 이번 사건이 유럽으로 건너온 보수적 이슬람교도 난민들이 유럽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문화 충돌을 겪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스위스 총선에서는 난민 수용에 반대 입장을 내댜던 우익 성향 대중당이 승리했다. 2009년 스위스 시민들은 이슬람 기도원인 미나레트 건설을 두고 벌어진 국민투표에서 이를 '끔찍한 이슬람화'라고 반대한 대중당의 손을 들어줬다. 스위스에서 종교에 대한 관용이 퇴보했음을 보여준 동시에 반이슬람 정서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약 35만명 규모에 이르는 스위스 내 이슬람 사회 지도자들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뒤 여론을 의식한 듯 이성과 악수하는 게 이슬람 율법적으로도 용인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위스 이슬람중앙의회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비판하면서 개인 간의 신체접촉까지 강요하는 건 전체주의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해당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부모는 지난 2001년 스위스에 도착해 살고 있으며 이미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결국 행사 조치로 마무리되어 슬프다"면서 "스위스에서 다른 사람 코를 부러뜨려도 5000스위스프랑이라는 거금을 벌금으로 내진 않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호소했다.

이 형제는 지난날 독일 일간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악수를 거절하는 건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지명 필요 대의원 1,238명 확보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최종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했다. 당초 다음달 7일 예정된 경선에서 대의원 매직넘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슈퍼 대의원이 지지를 일찌감치 밝히면서 매직넘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



27일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4일 워싱턴 경선 승리로 대의원 40명을 추가하면서 누적 대의원이 1,229명이 됐다. 이어 경선에 상관없이 지지를 밝힐 수 있는 슈퍼 대의원 일부가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혀 총 대의원수는 1,238명이 됐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 승리를 위한 대의원 매직넘버는 전체 대의원 2,472명의 과반인 1,237명으로 이를 넘어

야말로 대선 후보로써 활동해온 트럼프가 매직넘버 달성으로 더욱 기세가 오를 전망이다. 이로써 공화당 경선은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공식 인준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모두가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15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주장사 루디아는 나그네가 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며 전도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해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33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매 맞은 자리를 찢겨주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선행은 단순히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고난에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창12:3)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의 고난에 외면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제자들은 비유를 들은 다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했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결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거나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선행을 장려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세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어떠한 환란과 핍박이 오고 심지어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가 되고 감옥에 갇혀도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론 강화의 잠입하고 영광스러운 결론입니다.

말세의 복음 전도자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엄숙한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최후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영생과 멸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할 때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자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떠한 환란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시대조류의 타락해서 반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참된 정통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감당하는 개인과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복음전도의 사명을 위해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ikapc@gmail.com

오른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미국 성인 2명 중 1명 이상이 이번 대선에 대해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은 30일 시카고대 전국여론조사센터(NORC) 공공정책연구센터와 성인 1천60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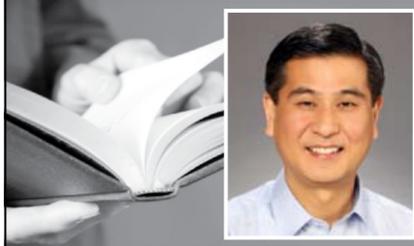
정당별로 구분하면 공화당 지지자의 60%, 민주당 지지자의 53%가 이번 대선에 무력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자랑스럽다'는 답변은 13%에 그쳤고,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AP통신은 또 유권자들이 지지정당과 상당한 '괴리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자신들의 지지정당이 일반 유권자들의 생각에 부응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공화당 지지자의 12%, 민주당 지지자의 25%에 그쳤다.

또 공화당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도권 밖 후보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개방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60%에 달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50%가 동일한 대답을 했다.

AP통신은 이 설문조사에 대해 "왜 아웃사이드인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부상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12-15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4.1%포인트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5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12) - 451년 칼세돈 종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은 17세기의 계몽주의와 함께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성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였다. 과학적이며 합리적 사고로 객관화된 기독교 진리를 재해석하고 비평하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경험이 신학의 토대가 된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예수는 성경의 증거와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그가 행한 기적을 허구라고 주장한다.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단한 신적 인물로 드러내기 위해 조작된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질문: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가?

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요구한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는 죄가 없으나 고난을 받으셨고, 죄인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켜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 강도회의

448년부터 451년까지 지속된 '유티케스 논쟁'의 핵심인물이 되었다.

유티케스의 주장에 맞서서 안디옥학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연합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488년에 모인 콘

■ 451년 칼세돈 종교회의

451년에 칼세돈에서 모인 종교회의는 '강도회의'의 오류를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정통교리를 확립하였다. 네스토리우스 '양성론'과 유티케스의 '단성론'교리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작성된 칼세돈 신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본질 이시다. 그는 만사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의 신성은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그의 인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성자시요, 주시요,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는 두 본성으로 인식되지만, 두 본성은 혼합이나 변화나 분할이나 분리가 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인격적인 연합은 각 성의 특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성은 각 본성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하나의 품성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두 품성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시고 유일한 독생자이신 로고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 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셨으며, 교부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셨고,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신조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셨다."

공유하는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유티케스의 주장과 달리 혼동이 없고, 네스토리우스의 주장과 달리 변함이나 분리가 없다. 나아가서 둘 사이의 나뉘도 없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양성교리가 교회의 정통교리로 확립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인양성 정체성은 기독교 모든 진리의 중심이자 기초 절대 진리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초대 교회 질문 재차 확인

를 믿으려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는 확신을 지녀야 한다.

초대교회가 경험한 수많은 신학논쟁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을 통해, 좀 더 분명한 기독교의 전통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질문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깊어졌다. 더욱 분명한 영적 유산을 후대 교회에게 남겨주게 된 것이다.

이미 반복적으로 언급한대로, 초대교회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알렉산드리아학파와 인성을 강조하는 안디옥학파 사이의 갈등 구도로 진행되었다. 5세기가 되도록 그들 사이의 신학적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몸 안에 기계적으로 연합되었다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381년 에베소 종교회의이후, 알렉산드리아학파는 힘을 얻었다.

451년 에베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회의가 열렸다.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쿠루스(Dioscurus)가 알렉산드리아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유티케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황제를 설득한 것이다. 세속적인 언어와 폭력이 난무한 이 회의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추한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신학적으로는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정통신앙으로 인정하였으며, 유티케스를 이단으로 선포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플라비아누스는 심한 폭행으로 며칠 뒤에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로마서 1:3-4; 갈라디아 4:4-5; 빌립보서 2:6-8; 히브리서 1:1-3;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에 그를 가두려는 오류가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양성 중 하나를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그려내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추대하거나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며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일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중심이자 기초이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시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수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 중심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가, 20세기를 지나면서 극대화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정신의 요구에 따라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있다. 초대교회가 지녔던 많은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 후대교회에 물려준 유산을 재차 확인해 보아야 할 때이다.

covenantcho@yahoo.com

1) 교회 역사를 보면...

■ 질문, 질문, 또 질문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의 질문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이었다. 381년에 모인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의 질문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431년 에베소 회의의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을 확립하였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질문이 많다는 것은, 고민하는 것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본체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정

451년에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칼세돈에서 네 번째 종교회의가 열렸다. 앞서 개최된 종교회의가 그리하였듯이, 그 자리에 모인 교회 대표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 위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다. 세계 교회가 종교회의의 모여야 했던 것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상반되는 답을 지닌 자들이 대답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의견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독교의 진리를 지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드리아학파에서 유티케스(Eutyches)라는 인물이 등장하였다. 그는 네스토리우스의 사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자신이 속한 학파의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펼쳤다. 그는 단성론, 즉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본성을 지녔다고 주장하였다. 성육신하신 이후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격적 로고스로 동화되었기에 그에게서 신성과 인성의 분명한 구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바다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다로 완전히 흡수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그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인간의 것과 분명히 구분되는 신적인 육체를 지니고 계신 분이였다. 이런 주장으로 인하여 그는 졸지에

스탄티노플 지방대회에서 유티케스의 이론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으로 이뤄짐을 성경적 가르침으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449년 에베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회의가 열렸다.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쿠루스(Dioscurus)가 알렉산드리아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유티케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황제를 설득한 것이다. 세속적인 언어와 폭력이 난무한 이 회의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추한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신학적으로는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정통신앙으로 인정하였으며, 유티케스를 이단으로 선포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플라비아누스는 심한 폭행으로 며칠 뒤에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던 이 종교회의는 어떤 합법성을 지니지 못했다. 로마 감독은 이 회의를 '강도회의'라고 선언하였다.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어떤 방법과 모습이 바람직하지에 대하여 후대 교회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긴 모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첫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나,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의 인성을 입으신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person)안에 두 본성(nature)을 지니셨다. 그는 하나님이지만, 로고스는 인간들이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6)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배우가 되지 마라

배우가 되지 마라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네 앞에

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나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보기 싫게 한다"(마6:1-18).

(1) "위선자"(외식하는 자)
극장에는 무대가 있고 그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연극을 하는 배우들에 비유하셨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외식하는 자'(hypocrite)라는 단어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바로 극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셨다. 사실이 말은 유대인들이 입에 올리지조차 꺼리는 용어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하셨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다. 여기 왕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다. 그는 관객들에게 왕처럼 보이기 위해 분장을 한다.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행세한다. 왕의 모습을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다. 그는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진짜 왕이 아니다. 이 사람은 무대 위에서는 왕이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한 사람의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배우이다. 배우는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다.

(2)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배우는 관객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배우이다.

(3)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극장에서는 광고를 하기 위해

트럼펫을 불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배우를 광고를 불면서 시작된다.

(4) "중언부언하지 말라"
배우는 계속해서 대사를 중언중언 암기한다. 그리고 외운 대사를 그대로 영무사처럼 반복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본대로 외우는 것뿐이다.

(5)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아라"
배우는 표정으로 말한다. 슬프지 않으면서도 슬픈 표정을 짓고, 기쁘지 않으면서도 기쁜 표정을 짓는다. 표정 흉내를 잘 내는 배우가 유능한 배우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이 가르침의 배경은 극장이다. 예

수께서는 우리의 경건 생활과 극장의 배우를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다.

"배우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배우처럼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하지 말라.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구제를 하는 것이 연기나 쇼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배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거짓된 연기를 그만하고 진실 되게 살아라. 연기가 자라 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라. 진실된 신앙인이 되어라."

jinhlee1004@yahoo.com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6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W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콩취임예배: 2월 10일 (월) 3월 11일 (월) 유치, 유치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son, MA 01748</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유치, 유치부: 오전 10:45 중, 고등학생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24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p>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9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예)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논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수요기도회: 오전 5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영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리더십 코멘터리 (18)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Strong Charisma

리더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질

카리스마를 뜻하는 영어인 카리스마(Charisma)는 재능, 신의 축복을 뜻하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하였다. 카리스마란 사람들의 관심 및 존경을 의미하는 말인데, 반대로 작용할 경우는 혐오감을 쉽게 끌어내는 특성을 가리키며, 이는 인격이나 외모 모두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에서 성령이 내리는 특별한 은혜, 예를 들면 예언, 영(靈)의 식별, 기적 등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1950년 대부터 리더십(leading)의 반병통치약으로 사용되었고, 기업에서 성공 비즈니스맨의 자질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카리스마(Charisma)는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이다. 카리스마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매료시키는 힘이라고 할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를 연속으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눈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에게서 받은 인상 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글 랫슨씨 앞에서 식사를 한 뒤, 식당을 나오면서 제가 한 생각은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디스라엘리시 앞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생각한 것은 내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디스라엘 리에게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그들이 자신을 따르길 원하도록 매료시키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리더십의 원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신비스럽고 선 천적으로 타고 나지 않으면, 결코 갖추 수 없는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 공 시대의 주인공들은 한결 같이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은 리더 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 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리 더의 가장 큰 선물이다. 구성원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며, 더 나아가 잠재력을 이 끌어내도록 도와준다면, 사람들은 리더인 당신을 마침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3) 희망의 선물 원리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리더를 '희망을 파는 상인(dealers in hope)'이라고 묘사 했다. 모든 위대한 리더들과 같이 나폴레옹 또한 희망이 모든 것 중의 최고라는 것을 현대의 리더 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리더가 희망의 선물을 전 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리더인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며, 또한 평생 감사해 할 것이다.

(4) 함께 하는 원리

사람들은 자신을 그들과 나누며, 인생의 여정 에 동참시키는 리더를 사랑한다. 리더십을 발휘 하려면 먼저 구성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 지혜도, 자원도, 심지어 어떤 특별한 경우라도 합 께 나누는 것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 카리스마를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타인을 생각하는 것 (other-mindedness)임을 잊어서 안 된다. 자신 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타인과 그들의 관심을 생각한다면, 리더인 당신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 행동강령

교회, 기업, 국가 모든 리더가 갖추어야 할 최고 자질 중 하나 타인에 관심 갖고 나누는 삶, 좋은 인상 남기기가 행동강령

수 있는데, 교회, 기업이, 국가의 모든 리더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질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끌어들이고 매료시키는 힘

19세기 후반, 영국 정계는 두 명의 라이벌 정치 가인 윌리엄 글래스톤과 벤자민 디스라엘리가 주 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30년간 자유당의 당수였던 글래스톤을 빅토리아 시대의 최고 성품을 지녔던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그는 많은 경험을 갖춘 리더 였고, 위대한 웅변가였으며, 재정에 관한 달인이 었고, 도덕의 철인이었다. 글래스톤은 각기 다른 시기에 네 차례나 영국의 수상으로 취임했는데 이는 영국 역사상 아무도 이룩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영국은 국가 교육 체제를 이룩했고, 국회 개혁법을 제정하였으며, 의미심 장하리만큼 많은 투표권이 근로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였다.

반면, 두 번에 걸쳐 수상 직을 역임했던 벤자민 디스라엘리는 다른 배경 갖고 있었다. 30대에 정치 에 입문한 그는 외교가로, 사회 개혁가로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영국의 수에즈 운하 사업권 참여를 지휘한 것이다. 두 사 람은 모두 영국을 위해 큰 공헌을 했지만, 국민에 게 다가서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서로 달랐다.

자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매료시키는 힘 을 말하는 것이며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 이다.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의 원리를 알아보자.

(1) 열정의 원리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리더를 좋아하고 삶에 열정을 갖고 있는 리더를 세우기를 원한다. 사람 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매료시키는 카리스마 를 갖추려면 먼저 자신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처 럼 되어야만 할 것이다. 18세기에 유명한 복음 전 도자였던 존 웨슬레는 현대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교훈한다. "당신 자신에게 불을 붙일 때, 사람들은 와서 당신이 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2) 좋은 점만 보는 원리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 는 그들에게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쉽게 발견되는 단점보다는 상대의 좋은 점을 본다면 사람들은 리더인 당신의 매력에 이끌리어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의 원리는 사람 들의 자존감을 높인다. 자크 위즐(Jacques Wiesel)은 현대 리더들에게 이렇게 교훈한다. "자 수성가한 100명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한 결과 한

자신의 카리스마를 더 강력하게 만들려면 다음 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라.

(1) 초점을 바꿔라: 시간을 정하여 리더인 당신 이 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점검하라. 남과 대 화를 나눌 때 반드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만 큼 할 것인지를 정하라. 그리고 남에게 관심을 기 울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라. 이렇게 하루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카리스마는 더 성장하고 강력 하게 될 것이다.

(2) 첫인상을 최대한 살려라: 이 시간 이후에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며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하루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카리스마는 더 성장하고 강력하게 될 것이다.

(3) 자신을 나누어 준다: 자신의 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아라. 그들이 개인 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공급해주어야. 이렇게 하 루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카리스마는 더 성장하 고 강력하게 될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라스베가스 영성

미국을 방문한 네째 언니, 형부와 함께 라스베가스에 사 는 둘째 언니네 조카를 방문하러 간 적이 있다. 라스베가스는 우리 집에서 네 시간 걸리는 거리여서 조카 가족은 시 간이 되면 한국식품도 살 겸 우리 집에 자주 오는 편이다. 그런데 나는 비빔기도 하지만 밥의 화려함과 낯의 초라함 이 너무 다른 그곳의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행 중 거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스베가스에 잘 가지 않 았었다.

이모, 이모부를 대접한다고 조카는 호텔을 잡아주고 쇼 터켓을 준비해 놓았다. "태양의 서커스"라는 제목의 쇼는 성인이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빼는 모습으로 나와서 유 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레 위의 태양에게 사 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절하는 자연 숭배주의로 끝나는 전형적인 뉴에이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쇼였다. 그 쇼를 보 는 내내 즐겁기는커녕 음산한 음악과 이상한 내용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중간에 앉아 있으니 나올 수도 없었다. 형 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쇼가 마친 후 "빨리 밖으로 나가서 좀 걷자.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시원한 밤공기라도 마시자고 호텔 밖으로 나오려는데 큰 글자로 반짝이는 "Religious Night Life"라는 사인이 눈에 확 들어왔다. "종교적인 밤"이라니 무슨 예배라도 있는 것 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광고가 나이트클럽의 광고인 것을 알았다. 밤새 춤추고 노는 것을 종교적인 밤생활이라 고 표현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오려고 나오다가 본 큰 광고판에는 "Spiritual Dining"이라는 사인도 보였다. "영적인 식사"는 또 무엇일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 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종교적, 영적이라는 단어를 마구 사용한다는 것이 새삼 충격이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에 별 생각 없 이 끌려갈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웰빙을 내세워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 올리겠다는 무서운 도전도 영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 전 한국 일간지에서 세계 영성계 슈퍼 스타라고 소개한 인도 사람도 "진정한 영성은 자기각성... 종교와 아무 상관없다"면서 "(영성의 세계에서 요즘 가장 신나는 일은) 사람들이 점점 종교적인 도그마나 이념을 탈 피하고 영감과 창의성의 원천인 자기각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영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고 말했다. 그가 최근에 출간한 책 이름은 "당신이 우주 다 (You are the Universe)"이다.

라스베가스는 LA와 가깝기 때문에 음식이 푸짐하고 가 족이 놀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라스베가스를 찾는 한인들도 많다. 또 젊은 아이들이 결혼 전에 파티를 할 때 쉽게 가는 곳도 라스베가스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 황에 있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오염된 메시지를 평가, 분 석, 선택해야 할 것이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부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성경훈련: 화, 토 오전 10:00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S.ORG</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 요 일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 일 1부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3부예배: 오후 1:30 주 일 4부예배: 오후 1: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 요 일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oc.org</p>	<p>뉴욕순복음인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 일 1부예배: 오전 7:30 주 일 2부예배: 오전 9:00 주 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4부예배: 오전 1: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 요 일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ech.com</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00 EVI영어 예 배: 오후 1:30 최 후 성 경 공 부: 오전 10:00 수 요 성 경 공 부: 오후 8:30 금 요 일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org</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10 새벽 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 요 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 일 예 배: 오전 10:50 찬 양 예 배: 오후 10:50 왕 인 년 성 경 공 부: 오후 1:30 주 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 요 찬 양 공 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p>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 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 일 2부예배: 오전 1:00 주 일 3부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토) 금 요 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p>	<p>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환근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 일 1부예배: 오전 8: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 일 3부예배: 오후 12:15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퀸즈안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 일 1부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성 경 공 부: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후 7:30(월-토) 금 요 일 예 배: 오후 8:30 금 요 일 예 배: 오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 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3부예배: 오후 1:30 포 이 예 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1-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 일 1부예배: 오전 8:00 주 일 2부예배: 오전 9:30 주 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 일 4부예배: 오후 2:00 주 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별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3부예배: 오후 1:00 주 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 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2부예배: 오전 7:00 수 요 기도회: 저녁 9:00 7:14호브기기도회: 아침 7:40 월,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 일 1부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 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금 요 예 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 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 주 스터디반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inrk@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ón-PARAGUAY</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 일 1부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 요 성 경 공 부: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 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4부예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금 요 일 예 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목회서신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여승훈 목사

삶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공급을 받을 때 이를 두고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을 이 땅에서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손을 댈 정도로 믿고 또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기도 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삶의 필요에 대하여 구하는 내용의 경구가 매우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이런 경향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크게 휘청거리며 좌절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복에 대

한 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혹자들 가운데는 구약 시대의 복을 물질의 복 즉 땅의 복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에 대한 참된 메시지로 부터 비켜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독특성중의 하나는 "일관성"이다. 구약에서는 땅의 복을 이야기했다가 신약에서는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불규칙적인 메시지를 성경은 결코 전하지 않는다. 구약

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복에 대하여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땅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하늘의 복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의 복을 배제시키고 하늘의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의 관계는 일종의 모형과 실제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땅의 복이 모형이면 하늘의 복은 실제가 되는 것이다. 땅의 복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늘의 복만을 주장하면 과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원론적인 이단 종파들의 뒤를 따르

는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땅의 복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보아야 할 하늘의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기복 신앙이 되는 것이다. 참된 복은 메시지는 모형과 실제의 관계를 조화롭고도 균형 있게 인식시켜서 삶에 필요로 하는 땅의 복을 구하게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의 복에 대한 소망을 붙잡도록 이끈다.

삶에 필요한 땅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더욱 사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구약의 족장들도 땅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방의 땅에 있는 것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시된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 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분향을 생각 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브리서 11:8-10; 13-16).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족장들의 특징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성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들의 복의 전부로 이해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족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는 가나안에 있는 성을 바랐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땅이 있다면 죽고 나서 그들의 시체가 묻힌 무덤이 전부라 생각했다면 얼마나 비관적이었

겠는가 생각해보라. 말할 수 없이 낙망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족장들은 땅의 복을 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아주 넘어지지 않았고 아주 낙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족장들의 신앙을 묘사하면서 첫 번째로 서술하는 표현이 "믿음으로"이다. 이 믿음은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믿음이다.

성경은 하늘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말씀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골 2:9). 땅의 복이 지체되는 현실의 상황을 감당하게 하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간절히 매어 달려 보라. 그 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께 대한 당신의 믿음이다.



미기총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1세기 기독교교회 일치와 부흥운동 컨퍼런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노스캐롤라이나 살럿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주최한 "21세기 기독교교회 일치와 부흥운동 컨퍼런스"가 5월 23일부터 3일간 노스캐롤라이나 살럿에서 열렸다.

첫날 오후 7시30분 열린 개회예배는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회장) 인도로, 대회선언 및 인사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말씀 및 첫 강의를 피종진 목사(남서울장로교회 원로목사)가 전했다. 피 목사는 "현대교회

와 목회자는 시대를 알고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속에서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불타는 사명감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 신앙, 긍정적 언어, 행동하는 부지런함으로 바른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 교협 회장단과 교단장의 인사가 진행됐다.

또 남상국 목사(OC교협 부총무), 장영일 박사(전 장신대 총장), 우디 맥랜던 박사(JARRS 대표), 서삼정 목사(미기총 중경회장), 성기호 박사(전 삼경대 총장), 브루스 존슨 박사(SIM대표) 등이 주제 강의를 인도했다.

참가자들은 빌리그래함 센터, JARRS 센터, SIMS 센터, 갈보리처치, 고든콘웰 신학교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제 18회기 총회는 오는 7월 열린다.

(기사제공: 미기총)



리치몬드 주예수교회가 주최한 제10회 다문화 음악축제를 마치고 참가한 6교회 합창단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그리스도 찬양 위해 한 곳에... 주예수교회 주최 제10회 다문화 음악축제

리치몬드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최한 다문화 음악축제(Intercultural Music Festival)가 지난주일인 22일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음악축제에는 지역 내 흑인교회, 백인교회, 히스패닉교회, 아시안 교회 6개 성가대 및 찬양팀과 주민 약 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각 인종 교유의 문화가 배어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배현찬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John Freel 목사(Messiah Christian Church)의 기도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박석민 장로(주예수교회)와 Tonya Johnson 장로(Eastminster), 두 한국인과 흑인 사회자의 호응을 맞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메시아크리스천교회 찬양팀의

CCM찬양에 이어, 이스트민스터장로교회 성가대의 흑인 특유의 영감 있는 찬양, 사우스민스터장로교회 성가대의 격조 있는 합창, 히스패닉 순복음교회(Living Water)의 열정적인 찬양과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리치몬드라이프센터의 영어와 포르투갈어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복을 곁들여 참여한 주예수교회 성가대의 한국적 신앙의 강한 힘과 정취,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가곡과 찬양(고향의 봄/जू세서 왕위에 오르신다/예수님이 좋은길)까지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이었다.

또 마지막 피날레에는 각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이 함께 무대로 나와 회중과 함께 "아버지여 구하옵니(Father, we ask of you this day)"를 찬양했다.

Peter Guizar 목사(Living Water)는 축도와 평화의 나눔 시간을 통해 리치몬드 지역 사회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인종과 교단을 뛰어 넘어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문화 음악축제는 1994년 이스트민스터장로교회와 주예수교회의 친선예배로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참여 교회들의 다채로운 특별공연으로 재미를 더했다. 특별히 이스트민스터장로교회 어린이 합창단(One Voice)의 찬양은 성인 못지않은 영성과 순수함, 열정을 보여주는 찬양으로 1, 2, 3 세대가 하나되게 배는 감격을 선사했다.

2부 저녁식사는 한국 전통 음식들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Diana Del Cid(Living Water 찬양팀)은 "각기 다른 민족 문화와 다른 예배 형식, 음악적 스타일을 가진 교회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한 오늘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매년 참석할 때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좋고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Betty Southerland(이스트민스터 성가대 지휘자)는 "리치몬드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공동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한데 어울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합동해외총회 제 38회 총회를 마치고 신규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총회 되도록" 예장(합동)해외총회 38회 총회, 새총회장 강유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GAOKPC) 제 38회 총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저지 주예수 사랑교회에서 열려 새 총회장에 강유남 목사(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를 선임했다.

강유남 목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과 칼빈신학의 근간인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신봉하는 총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총회가 되도록 개혁주의 전통 보수신학에 굳게 서겠다"며, 모든 총대와 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를 당부했다.

이번 38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강유남 목사 △부총회장 임근만 목사 △서기 홍성표 목사 △부서기 정대영 목사 △회록서기 한상홍 목사 △회록부서기 이재성 목사 △회계 변윤섭 장로 △총무 윤세웅 목사 △부총무 이대길 목사.

첫날 개회예배는 직전 총회장 임기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 정대영 목사, 성경봉독 한상홍 목사, 설교 임기환 목사, 환영사 준비위원장 이대길 목사, 축사 중경총회장 이재영 목사, 축도 중경총회장 정영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 2부는 성찬예식에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돼 각 노회, 각부 보고, 각 기관보고 회계보고, 안건토의 등이 있었다.

이밖에 이슬람,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과 해외 선교, 전도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불우 신학생 및 미자립 교회 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기사제공: 합동해외총회)

'킹덤드림콘서트' 이번에는 동부에서 6월 22일-7월3일, 애틀랜타 뉴저지 DC 필라 뉴욕

지난해 10월 미서부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킹덤드림 콘서트 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미동부 지역에서 열린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는 킹덤드림 콘서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사명을 발견케 하는 집회다.

작년 10월 킹덤드림 콘서트는 라스베가스, LA, 산호세 지역에서 약 2200명에 청년들이 모였고, 약 90여명이 현재자매들이 풀타임 목사, 선교사로 헌신했다.

작년부터 킹덤드림 콘서트를 섬겨온 새들백교회 이재환 인턴 전도사는 "단 3번의 킹덤드림 콘서트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 불가능할 것 같은 청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보며 눈이 부을 정도로 눈물 흘렸던 제 자신이 기억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킹덤드림 콘서트는 찬양, 말씀, 기도, 결단의 형식으로 3-4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반적인 진행은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찬양은 영어와 함께 부르게 되며, 설교는



자막과 통역이 동반돼 영어권 청년들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찬양인도와 설교는 한국어에서 온 찬양을 목사가 인도하게 된다.

찬양을 목사는 한국컨티넨탈싱어즈의 보컬과 지휘자를 영입했으며 디사이플스를 이끌며 찬양인도자로도 사역했다. 현재는 뉴사운드교회를 개척해 500명 이상의 청년교회로 세워나가고 있으며, 뉴저시 레이시언 무브먼트를 설립해 한국 교회에 식여진 예배 사역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전 목사는 "킹덤드림 콘서트는 우선 제 자신을 살리는 사역이다. 집회를 섬길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제 생각 이상이었다. 특별한 은혜가 있고 다른 집회

와는 다름을 느낀다"며, "그 은혜를 사모해서 미국까지 와 킹덤드림 콘서트에 헌신하고 있다. 미동부에 계신 예배자들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킹덤드림 동부사역 팀장인 김재호 전도사는 "이번 미동부 킹덤드림 콘서트를 섬기기 위해 LA지역 청년들 14명이 파송될 것이다. 미동부지역에 부흥을 위해 거의 매일 화상 채팅으로 기도하고 있고, 헌금을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전체 예산 7만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헌신하는 이상으로 주님은 채워주시 것"이라고 말한다.

미주 킹덤드림을 섬기는 최순환 목사는 "8개월 전부터 킹덤드림 비전을 동부 지역에 교회, 목회자, 평신도 분들에게 나누었다.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해주셨다"며 후원자들을 소개했다.

미동부 킹덤드림콘서트 일정은 △6월 22일(수) 저녁 7시 애틀랜타 시온연합감리교회, △25일(주) 저녁 6시 뉴저지 필그림교회 △28일(화) 저녁 7시 워싱턴DC 베다니교회 △7월 1일(금) 저녁 7시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3일(주) 저녁 6시 뉴욕 맨해튼 THE CIRCLE NYC에서 열린다.

집회는 선착순 사전 예약을 통한 무료 티켓 소지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문의: kingdomdreamintl@gmail.com, www.kdusa.org

(기사제공: 킹덤드림콘서트)



페트라대학교 제2회 졸업생들이 교수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앞줄 중앙이 총장 김정호 목사

페트라대학교 13명 졸업생 배출 인천국제총회신학교와 MOU로 과정 진행

페트라대학교(Petra University) · 총장 김정호 목사가 제 2회 졸업식을 갖고 1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20일 파사데나에 소재한 William Carey University에서 열린 졸업식 1부 졸업예배는 이형근 목사(인천국제총회신학교 학술원장)의 개회기도로 시작해 이영훈

목사(인천국제총회신학교 이사장)의 기도 후, 김경신 교수(전 대신대, 백석대 교수)의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31-32)란 제목의 설교와 축도로 진행됐다.

2부 학위수여식에는 이규홍 목사(대신대 예능학과장)가 개회기도, 김정호 본교 총장과 한신영 전국제총회신학교 학장이 학위수여, 정세

열 교수(전 전북개혁신학교 학장) 격려사, 고재원 교수(New Hope University) 축사, 최승문 목사(학생 대표) 광고, 김정호 총장이 축도했다.

졸업식에 앞서 1주일간 단기집중 과정이 인천국제총회신학교와 MOU 관계에 있는 페트라대학교의 2년제 과정의 일부로 William Carey University에서 진행했는데, 김경신 교수의 "히브리서"에 대한 재해석, 박사무엘 교수의 "치유신학", 고재원 교수의 "출애굽기 석의", 김숙영 교수의 "교회음악을 통한 치유" 등의 강의가 있었다.

이날 학위수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M.Div.: 박효례, 형용자 등 2명 △D.Min.: 김중성, 장향길, 조강연, 최경애, 최승문 △Th.D.: 박치요, 이규홍, 이영훈, 이형근, 정세열, 한신영.

(기사제공: 페트라 대학교)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신대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제 2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13일(월) 오후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졸업예배는 목회학석사 7명, 여교역학 2명, 신학사 7명 등 총 16명이 졸업한다.

▲문의: (718)463-7163

뉴저지/필라델피아 지역 EM 청소년 컨퍼런스

2세 청소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S.E.T. Youth Summit(www.setsummit.com)이 6월 24일(금)부터 29일(수)까지 필라델피아(필라델피아한인침례교회)와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지난 9년 동안, 유럽(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과 미국 달라스에서 진행된 이 사역은, 한국 이민교회에서 성장하는 디아스포라 2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며, 점점 세속화되며 인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이다.

모든 교사와 강사는 15세/2세 목회자와 교사로 이뤄져 있으며, 일주일간 훈련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신앙에 대해 많은 믿음의 멘토들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컨퍼런스 이후에 학생들이 속해있는 지역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2세들을 위한 청소년 리더십 훈련도 함께 한다.

2016년 여름 SET 컨퍼런스 강사로는 폴 조 박사(워싱턴DC 웨슬리신학교 조교수), 아놀드 목사(하베스트처치, NC), 배송희 목사(라이트하우스선교교회), 미나최 목사(둘레스타운장로교회&필라델피아한인침례교회), 데이비(보스턴 스토리하트초처치).

▲문의: (817)201-5618, orgue4him@gmail.com



퀸즈장로교회가 러시아권 설립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다민족 예수공동체 이루는 교회로”

퀸즈장로교회, 러시아권 설립예배 드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영어회중과 중국어회중에 이어 러시아어회중을 위한 예배를 시작했다.

지난 29일 저녁 4시 처음으로 드린 러시아권 설립예배에서 담임 김성국 목사는 “우리가 플러싱에 사는 이유”에 대해 “플러싱은 현재 한인들이 떠나가는 곳이지만 가장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천상의 다민족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날 한인 이민생활의 첫 발을 시작한 곳이 플러싱에 있는 퀸즈장로교회에 살고 지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한인들이 모여

서 예배드리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 왔다”면서, “여전히 버거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인 성도들이 기댈 곳,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어울릴 곳으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예수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비전나눔을 선포했다.

예배는 윤지현 집사 사회로, 김성국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예배선언, 경배와 찬양, 기도(브루클린 올네이션스교회 레오나드 김 목사) 성경봉독(필라우스오비도프 형제), 찬양(찬양대), 말씀 송요한 목사, 특송(블레시파이어), 헌금 및 찬송, 축사(뉴저지 올네이션스교회 양춘호 목사), 광고(정길표 장로), 비전나눔(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퀸즈장로교회 러시아권 담당 사역자인 송요한 목사는 고려인 3세로 시드니교회 소속이며 올네이션스교회 협력선교사로 사역해왔다.

이날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5-19)라는 제목의 설교한 송요한 목사는 “을 1월부터 퀸즈장로교회에 왔는데 사순절을 지나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교인들의 헌신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5월 정기예배가 25일 오전 10시30분 퀸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회무에 앞서 열린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심화자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 합심기도 인도 권개더린 목사, 축도 박진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겔15: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현재 이 시대와 유사하다”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비유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껍질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은 어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요15:2에서 “제거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포기나 버림이 아니고 가지치기 즉 정제다. 가지치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이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려는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며 기회다. 교계의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 전희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시간에는 박진하 목사 외 찬양 간사가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콜롬비아 단기선교 진행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콜롬비아 단기선교는 △지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모기장 사역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물탱크 사역 △집짓기 사역 △현지교회 수요예배 참석 △현지인 결혼주례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유상열 목사는 광고를 통해 동기구의 핵심사업인 해외아동결연수는 현재 194명으로 2016년까지 올해 목표 2백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해외국장 김홍석 목사의 폐회 및 만찬기도 후, 퀸즈침례교회가 제공한 오찬을 나눴다.

한편 6월 월례회는 29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초대교회에서 열린다.

후원 문의는 (646)270-9771(회장 전희수 목사)와 이메일 breadgo spel@gmail.com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eafh.org. (유원정 기자)



에콰도르 지진피해 현장을 찾은 뉴욕교협단. 오른쪽부터 박진하 목사, 문석호 목사, 김홍석 목사.

뉴욕교협 에콰도르 지진피해 구호방문단 귀환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지난 20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에콰도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 구호품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김홍석 목사(부회장, 뉴욕늘기쁜교회), 문석호 목사(선교분과위원장, 뉴욕효신장로교회), 박진하 목사(총무, 퀸즈침례교회)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 16일 진도 7.8의 대규모 지진으로 폐허가 된 에콰도르 만타(Manta) 지역과 여진으로 붕괴된 발란시아(Valencia) 지역 원주민교회, 아동 선교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구호품을 만들어 3곳을 돌면서 분배했다. 모든 과정에 위험이 뒤따랐지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구호팀’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물품을 전달했다. 또 지진 피해를 당하거나 고아들

을 위한 헌금을 관계 기관(에콰도르에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 전달했다.

총무 박진하 목사는 “에콰도르는 고아원이나 고아를 보기가 힘들다”며 “그러나 여아가 13-16세에 임마가 되는 경우가 많고 어린 청년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떠나면 나이 어린 엄마, 혹은 할머니, 여자 집안 부모들이 양육하게 되며, 자녀가 2-4명 되는 미혼모가 끝까지 양육하게 되면 그 미혼모가 고아원 원장이 되는 것이 에콰도르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아들을 위한 헌금은 공인기관(기독교기관)을 통해 피해 아동들을 위한 펀드가 돼 지속적인 고아 후원을 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서양화가 유경옥 전도사 제 14회 개인전

서양화가 유경옥 전도사(수곡미술선교회 회장)의 제 14회 개인전이 6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뉴욕 퀸즈 소재 Gallery Chun(35-14 150PL, Flushing)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순례-순교의 시간. 유화백은 그동안 설치, 유화, 믹스미디어 등의 기법을 사용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표현해왔는데, 이번에는 로마를 방문해 직접 촬영한 사진에 리터치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표현했다.

로마 성지순례를 하며 사도 바울의 참수교회 내의 부조를 배경으로 시간 상징으로 사용해오던 물거품 형태의 구조물을 넣어 전체 화면을 구성했고, 초대교회의 박해 현장으로 알려진 로마의 폴로세움도 동일한 기법으로 표현했다.

작품 ‘혈흔의 콜로세움’(The Blood-Stained Colosseum)이나 ‘폼베이의 날’(The D-Day of Vulcan’s Worship Day of Pompei)에서 물거품을 옆으로 세워 영어 ‘D’자로 보이게 한 것과 붉은 베스비오스 산과의 상징성이 돋보인다.



다른 전시실에는 순례 작품이 아닌 드로잉과 소품, 수곡미술선교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참가 회원들은 최미하 전도사(의상), 서양화가 이은순, 신동주 어린이 등다.

리셉션은 6월 11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세한 문의는 (347)901-7472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대진, 김진섭, 남태성, 박병섭, 박선강, 이금순, 최진식
- 여교역학과 (Diploma)
권영주, 김정임
- 신학사 (B.Th)
김미권, 김인숙, 엄순애, 정재원, 한우연, 허준, 현종영

일 시: 주후 2016년 6월 13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463-7163, (718)886-4040

미주한인예수교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이사장 이용걸 박사

이민교회위한 '장자권 기도목회'

4개 단체 공동주최, 세미나 강사 이영환 목사

이민교회를 위한 장자권 기도목회 세미나가 미주한기부, 생명의양식신학교연구원, 장자권연구원, 미주양곡교회 공동주최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열렸다.



이민교회를 위한 장자권 기도목회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이영환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경호 목사 찬양인도와 지용덕 목사 사회로 시작된 수요일 저녁 세미나는 지용수 목사(장원양교회 담임)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열린양동찬양선교단 조미나 목사가 찬양을 올렸다.

이어서 강사로 나선 이영환 목사가 '기도, 하늘나라에서 VIP 취급됨을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교회세우기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형국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영환 목사는 "기도가 너무 귀한 것이다. 기도는 꼭 필요한 절대 가치이며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기도는 영과 영의 교제"라고 말했다.

한편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회예배는 김희복 목사(미주분부장) 사회로 시작, 심진구 목사(사무총장)가 기도했으며 김영길 목사(교단중경총회장)가 '교회가 시작된

첫날'(엡2:41-4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강신권 목사(남가주교회 회장)가 축도했다.

이어 '이민교회 목회론: 인간관계론'이란 주제로 열린 특강은 감기동 목사(OC교회 중경회장) 사회로 시작, 신현철 목사(OC교회 부회장)가 기도했으며, 한기홍 목사(미기중경회장)가 강의했다.

오후 강의는 정요한 목사(CHTV 사장) 사회로 시작, 정삼호 목사(분회 공동회장)가 기도했으며, 이영환 목사가 강의했다.

27일 오전 11시에 열린 폐강예배와 수료식 감사패 전달식은 박용덕 목사(분회 실무회장) 사회로 시작, 박성규 목사(KPCA 부총회장)가 기도했으며 지용수 목사(예장통합 중경총회장)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행16:16-18)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서 지용덕 목사가 감사패 전달 및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염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동요사랑회가 주최한 제14회 동요부르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동요부르기대회 대상 변하늘 어린이 미주동요사랑회 주관, 총60팀 120명 참가

미주동요사랑회(회장 클라라 이) 주관 제 14회 동요 부르기 대회가 5월 28일 오후 3시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클라라 이 회장은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이 LA 카운티에서는 물론 오리엔트카운티에서도 많이 출전을 했다. 이렇게 많은 참여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동요가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차지했다. 총 60팀 참가자 120명이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친 동요 부르기 대회는 문혜원 이사장이 진행하고 심사는 노혜숙, 김형직, 장상근 씨가 맡았다.

다음은 제14회 동요 부르기 대회 수상자 명단.

△대상: 변하늘(5학년) △특별상(권길상 상): 박진주(11학년) △최우수상 유치부: 이루비, 초급부: 박정은(3학년), 중급부: 정다은(5학년), 고급부: 박초롱(10학년), 중창: LA Young Players 고학년반 등이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하형록 목사 간증집회에서 하형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복음은 내가 기쁨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에 해방시켜야 하며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국 목사는 "축복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의연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라 말하며 "복회자들이 맡겨진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풀어주지 못했다면 피상적인 목회를 한 것이다. 목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상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요일 오전은 김세운 박사(플러신학교 교수)가 특강을 했다. (박준호 기자)

김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인격적인 결단이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는 재헌신을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성화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근엄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 도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 무언가를

서부교계 게시판

사우스베이 부모님선교회 창립10주년 감사예배
사우스베이 부모님 선교회(회장 박용기 목사) 창립 10주년 감사예배가 6월 19일(주) 오후 5시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룡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강부용 목사(세계바울선교회장)가 맡는다. ▲문의:(562)417-4869

생명의전화 창립18주년 기념식
생명의 전화(대표 바다윗 목사) 창립 18주년 기념식이 6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리며 이날 설교는 지용성 목사(안디옥장로교회 담임). ▲문의: (213)739-8824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LA특별전시회 및 기념행사
한국 독립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LA특별전시회가 스코필드박사내한100주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 특별전 일정은 △6월 1-7일 우정의 종각(오프닝행사 5일 오후 5시) △6월 4-12일 윌페이스(오프닝행사 4일 오후 5시), △6-10일 KWMC계신교대회가 열리는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편 기념행사(토코르서트)는 정운호 회장이 "한국을 치유한 스코필드박사"라는 주제로 갖는다. 일정은 △6월3일(금) 오후 8시 남가주주님의교회 △4일(토) 오전5시20분 새생명비전교회 △5일(주) 오후 2시 토랜스조은교회 △7일(화)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문의: 82-2-766-2019

남가주목사회 주최 사랑의결혼식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염규서 목사)가 주최한 사랑의결혼식이 5월 28일 오후 5시30분 중앙루터교회(담임 홍영환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염규서 목사가 주례자로 나선 가운데 시작된 사랑의결혼식은 신랑 정성형제와 신부 임현진 자매가 이날 교회를 가득채운 하객들의 축하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주최한 사랑의결혼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신랑 신부는 "저희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이

있기까지 저희 두 사람을 바른길로 이끌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아끼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오셔서 축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비전은 구체적 동사형" 은혜한인교회, 팀하스 회장 하형록 목사 간증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P31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의 회장인 하형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간증 집회를 27일 오후 8시 개최했다.

하형록 목사는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의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구체적인 동사형으로 표현되는 것이

정당한 비전이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남가주와 미국의 영적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합심기도 했으며, 한기홍 목사의 소개를 받은 하형록 목사가 단상에 올라 말씀을 전했다.

한편 하형록 목사 특별세미나는 집회 하루전날인 26일 오후 7시 본 교회 웨딩홀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장로교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언예배: 오전 9:30, 11:30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sa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장로교회: 오후 2:00(영성) 주일영언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719-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mk.com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특별집회: 오전 5:30 주일특별집회: 오전 6:30 EM, 대담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언예배(영성-KDC, 평일특별집회) 주일 학교: 오후 11:20 평일학교: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kjcc.com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jcc.org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gjc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부"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559-72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89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목요일예배: 오후 4:00 Tel: (213)388-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2:00(주일)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Fax: (213)381-26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9: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언예배(영성): 오전 11:00(월-토) 대학원예배: 오후 1:00 평일학교: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언예배: 오전 2:00(대학부) 평일학교: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www.gjcc.org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6:00(토) 수요일특별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14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염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주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6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9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13	토랜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평일학교: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한국교계,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환영

서울서부지법이 25일 김조광수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각하 하자 교계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기독교인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헌법 개정 사안임을 적극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각하결정에 한국교계 일제히 환영=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동성결혼은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도 “서울서부지법의 각하 판결은 엄정한 법 집행일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아무리 사회적·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

사)는 “국내 인권단체와 진보세력, 미국 정부 등 각종 사회적·국제적 압력에도 각하 결정을 내린 서울 서부지법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왜 각하했나=김씨가 제기한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1남1녀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동성커플, 불륜커플, 일부다처(一夫多妻) 일처다부(一妻多夫) 커플은 헌법상 부부로 인정받

지 못한다. 만약 김씨가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받고 싶다면 법원에 호소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통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서울서부지법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정성미(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사안인데도 김씨는 여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해 동성결혼을 인정받으려는 꼼수를 썼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하 결정을 받은 김씨는 ‘사랑이 인간다’며 법을 조일한 감상적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려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퀴어문화축제 반대 국민대회 협력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안호텔에서 각 교단 총무단과 함께 모임을 갖고 다음달 11일 서울 대한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국민대회’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만수 한국교회연합 동성애대책위원장과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참석해 ‘2017 퀴어문화축제’의 사회적 위협성과 국민대회의 준비 상황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퀴어축제는 음란문화를 한국 사회에 불어넣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교회 300곳에 공문을 보내고 협력을 요청한 상태인데 교단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더 많은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대회는 기독교는 물론 불교와 천주교,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이 동성애의 병리적, 사회적 위험성을 바로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장은 “조일래(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은 물론 각 교단들이 국민대회 당일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혼모를 위한 대책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 문제에 대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동성애자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품을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안티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느끼게 해선 안 된다”며 “퀴어축제에 대한 반대와 동성애의 위험성을 확실히 보여 주되 동성애 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구해 우리 사회에 동성애의 실체를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무용(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도 “각 교단 산하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의견을 하나로 묶고 ‘동성애 합법화’ 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광장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장과 설교자를 확정하는 대로 국민대회 조직을 발표하고 교단 및 개교회별 협력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에선 ‘동성애 포용을 위해 성경을 다시 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세계관을 뿌리째 뽑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교회가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며, 말씀을 잃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면서 “이제 그간의 침묵을 깨고 항의전화, 항의 댓글, 퀴어문화축제 반대 국민대회 참석 등으로 동성애 반대 의사를 적극 표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해훈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또다시 상정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법안저지에 함께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최건호 김수읍 안만수 목사, 강덕영 주대준 장로 등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퀴어문화축제 반대와 비성경적 가치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겸손과 성령의 선교에 매진하자” 순복음선교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개최

(재)순복음선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했다.

선교회 총재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겸손의 선교 성령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선교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십자가 복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할렐루야 아름다운” 고 최자실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를 개척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1958년 서울 불광동 개발에 천막교회를 세웠다”면서 “개발주인의 허락도 없이 시작한 천막교회가 귀신을 내쫓고 희망의 복음을 전해 오늘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선교사의

근본사명도 이처럼 온 전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라며 “오늘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외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을 널리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도 “이답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원죄를 짓게 됐다”면서 “그 죄의 삯은 사망인데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며 저주와 진노, 죄 형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강조했다. 순복음선교회는 이날 주권태, 장병준, 이아람, 김미정, 김태운, 곤도 히사야스 선교사 등에게 우수선교사상을 수여했다. 선교회에는 원주민 선교사 108명과 교인목회자 553명이 소속돼 있으며, 1276개 교회에 13만308명의 성도가 등록돼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는 27일

“겸손과 성령의 선교에 매진하자” 순복음선교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개최

하나님의교회 비판 진흥식 목사 대법서도 전부 무죄판결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중진회)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진흥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떠돌다는 교주 안상홍이 구수를 먹다가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장길자(73)씨에 대한 비판, 시한부종말론에 따른 신도들의 재산한난 문제 등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됐다.

“종교개혁500주년...교단 회개운동 일으킬 것”

기성 총회장에 여성삼 목사, 부총회장 신상범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25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서울신대에서 열린 ‘제110년차 정기총회’ 둘째 날 회의에서 부총회장 여성삼(서울 천호동교회)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여 신임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의 위기가 일반화돼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교단 내에 뜨거운 회개와 반성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성결교가 이 땅에서 110년 동안 주창해온, 중생·성결·신유·재림의 4중 복음을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4중 복음을 현장화·토착화·목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총회장은 “교단의 해외선교 40주년을 맞아 해외 선교 총회 등과 협력해 새로운 선교전략을 세우고 복음전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교회학교에서 청소년을 잘 양육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양성해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총회장은 인하대와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캐나다 프로비던스 신학대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여 총회장은 기성 총회 선교부장, 음악부장, 평

신도부장, 헌법연구위원, 해외선교위원장, 군선교후원회장과 서울신대 대학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목사 부총회장에 단독후보로 나선 신상범(인천 새빛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신 부총회장은 “개척자의 열정과 성실, 겸손함으로 교단을 섬기며 격려하는 지도자이자 동역자가 될 것”이라며 “성결복음의 확산 및 세계화

이정익 목사 은퇴예배...원로목사 추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기성)의 대표적 목회자인 이정익(사진) 서울 신촌교회 목사가 원로목사에 추대됐다.



이 목사는 29일 서울 신촌성결교회에서 개최된 원로목사 추대에 식에서 47년 목회사역을 정리하고 목회 ‘바탕’을 박노훈(46) 담임목사에게 전달했다. 이 목사는 1991년 신촌성결교회 4대 목사로 부임해 25년간 목회했으며, 기성 총회장과 기성 총회 선교부장, 음악부장, 대

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 앞서 대의원들은 또 다른 목사 부총회장 후보였던 고이원호(춘천 소양교회) 목사를 위해 목념했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준규(서울 정계열린교회) 장로, 서기에는 성찬용(서울 청파교회) 목사, 회계에는 임평재(서산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대의원들은 이날 저녁 교단 창립 1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단의 부흥과 도약을 다짐했다.

한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목사는 “지난 47년간 목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목회를 도와주신 당회원과 교우, 부교역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조용히 교회와 교단, 교계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일래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전병일 유동선 전 총회장 등 참석자들은 이 목사를 향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다.

이날 추대예식에는 손인용 실천신학대학원대 총장, 김삼환(명성교회 원로)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정강영 연세대 전 총장 등이 참석해 이 목사의 노고를 격려했다. 여성삼 기성 총회장은 이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감리교단 선거에 암행감시단 뜬다

“절박한 심정으로 부정선거 근절”

감리교단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치러질 감리교단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암행감시단을 조직해 모니터링 활동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바른감독선거협의회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석교감리교회(홍광민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 감리교단에서는 선거 관련 소송이 106번이나 있었다”며 “감리교회 미래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부정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회들이 자체적으로 선거부정 척결운동을 벌이고 신

학대 동문회와 평신도 단체들의 관련 기도회가 열린 적도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다”며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감리교단은 2008년과 2013년 감독회장 선거와 이 기간 연회 감독선거가 수차례 혼탁하게 치러지면서 심한 내용을 겪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8~2013년 교단 선거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 적발된 사례만 38건에 달한다. 당선이나 선거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도 많다.

협의회는 감리교단의 개혁 성향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 1996년 설립된 단체다. 이들은 앞

으로 각 연회별로 암행감시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암행감시단은 연회별로 목회자와 장로 20~40명 수준으로 구성돼 후보자의 선거동선을 따라다니며 밀착 감시활동을 벌인다. 각종 제보를 받는 기구도 운영한다. 불법선거 제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공명선거 후보자 서약식’ ‘공명선거 토론회’도 개최한다.

협의회 회장인 송정호 목사는 “이번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리교회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무인 지학수 목사는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인에도 후보자가 식사를 제공하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션스쿨답지 않은 ‘기독교학교’ ...정체성 위기

전국 교육·종교교육 담당자 설문조사...개선 방향 세미나

기독교학교들이 미션스쿨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입시경쟁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육뿐 아니라 학교 운영 등에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해 하고 이를 한국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위원장 이철신 목사)와 장로회신학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한국기독교학교 진단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해 8월 전국 314개 초·중·고 기독교학교의 교육 및 종교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전국 기독교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학교처럼 입시 위주 교육...기독교학교 정체성 상실해=조사 결과 교육 두 명 중 한명은 기독교학교가 처한 가장 큰 위기요인(복수응답)으로 ‘입시와 경쟁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분위기(49.2%)’를 꼽았다. ‘기독교적이 지 못한 학교와 재단의 모습(23%)’과 ‘교직원들의 신앙과 헌신의 약화(23%)’ ‘건학이념, 설립목적 등의 상실(21.3%)’ ‘평준화 정책 등 제도적 제약(21.3%)’ 등이 뒤를 이었다.

과열된 입시경쟁, 고교평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의 자율성 제약 등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나 재단과 학교 측의 기독교적 가치 상실 등 주체적인 요인이 결합하면서 미션스쿨로서 정체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풀이된다.

실제로 기독교학교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갖는 이미지는 물론 질문에선 64.4%가 ‘종교수업과 예배를 빼면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이 기독교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복음전파에 충실한 선교적 학교’란 응답은 각각

22.0%, 13.6%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독교학교의 최우선 당면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꼽은 이들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들의 신앙 회복 및 고취(29.2%)’ ‘건학이념의 구현(27.4%)’ ‘신앙교육의 자유(16.1%)’ 순이었다.

◇교회와 따로 가는 종교교육=종교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선 ‘기독교신앙을 전하는 신앙(종파)교육’이란 응답이 61.7%로 가장 높았다. ‘기독교적 가치를 전하는 윤리·기치(종교성) 교육(36.7%)’이 뒤를 이었다.

현재 기독교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예배의 횟수는 주 1회(67.8%)가 가장 많았고 월 1회(15.3%)가 두 번째였다. 예배 형식은 ‘기성 예배(38.3%)’가 ‘선교적 열린 예배(33.3%)’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고, ‘문화집권 형태 예배’를 드린다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기독교학교 가운데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비기독교인인 곳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관교단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51.5%)’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8.2%, ‘예장합동’은 12.1%였다. 나머지는 ‘독립교단(6.1%)’ ‘예장고신(3.0%)’ 순이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교단이나 노회, 교회에서 받는 가장 많은 지원(복수응답)은 ‘장학금(59.3%)’과 ‘절기행사(55.6%)’ ‘재정(53.7%)’ 순이었다.

◇기독교학교 정체성 회복 위해 한국교회 역할 중요=박상진 소장은 대부분의 기독교학교가 일반학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학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소장은 “현재 국내 기독교 학교 중 교단과 노회, 교회와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며 “향후 기독교학교 존립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가 연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울러 기독 교사와 교육, 종교 교육 교사, 이사회 인사 및 학부모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소장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방향에 있어 이사회와 교사, 학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도 이들을 위한 교육은 취약하다”면서 “기독교학교의 전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 따른 교회 대처 방안 (3)



시니어즈블레스라이프 원장 김병호 목사

고령화 시대의 목회적 대안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한국 교회가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캐톨릭 주교회의가 발표한 '2011년도 한국 천주교회 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신자가 모두 75만 명으로 전 신자의 14.6%에 해당한다. 이는 2012년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11.8%보다 훨씬 높다는 말이다.

2015년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소(PPIC)가 최근 발표한 '캘리포니아 시니어 인구성장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480만 명으로 12%를 차지한다고 하니 교회 노인이 비

자가 섬겼던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만큼 고령화에 의한 노인 성도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일례로 남가주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는 제직교인 5000명 출석인원 3500명 출석 중에 7,800명이 시니어라고 한다. 사랑의빛선교회는 1500명 제직교인 출석인원 1250명 중에 시니어들이 250명이 출석한다고 한다. 뱀혈한인교회는 30%가 시니어들이라고 한다. 영락교회, 예브리데이교회, 은혜한인교회 등 이민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시니어들로 점점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80%

심, 무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정부와 각 주와 사회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본다. 10년 전만 해도 미주 한인 노인 교회나 미주 교회를 보면 교회를 설립된 지 오랜 될수록 노인 신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정도로 노인들이 많은 교회들로 바뀌고 있다. 조만간 유럽 교회와 같이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염려가 든다.

그래서 특성화 된 교회, 동질 집단의 원리에 의한 노인들만 위한 목회나 독립된 노인들만 드리는 예배당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오는 갈렘의 이름을 따서 '갈렘 교회'라고 했다.

갈렘교회의 발단은 2010년 12월에 65세 이상 신자들만 따로 교구를 구성해 일종의 실버대학인 '지혜자 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무렵 유기성 담임목사와 이 교회 장로들은 교회법상 70세로 규정된 정년을 5년 앞당겨 65세에 자진 은퇴하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교회를 보다 젊고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한 희생적 결단이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리더십은 젊어지게 되었으나 초기에 은퇴하는 장로, 권사 등 직분자들의 재능과 경험은 일찍 묻히는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다. 그래서 노년층만의 독립적인 교회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1년여 동안 교회 설립을 준비한 끝에 2012년 12월 20일 갈렘교회 설립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설립예배에서 유기성 담임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 시니어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갈렘교회의 재정과 사역은 본 교회인 선한목자교회에서 독립되었다. 65세 이상 신자가 낸 헌금은 갈렘교회 자체의 사역과 담당목회자의 사례비 등에 사용된다. 또한 선교사 파송도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비록 주일예배는 중·장년층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닐지라도 '교회 내 교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교회의 운영은 15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장로교의 당회에 해당)가 맡고 15인위원회는 예산과 인사 등 모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갈렘교회 정기예배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한다. 등록교인은 629명 중에 450명이 출석한다. 이 가운데 250명이 목요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노년층만의 교회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갈렘교회 담당 정기예배 목사는 "우리교회는 조기 은퇴한 직분자들이 새로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 그동안 시니어 신자들은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봄에 있는 어르신 나들이에 대해 '효도관광'이라는 표현보다는 '봄소풍'이나 '뽕밭기 기도회' 등의 이름을 붙인 것도 이와 관계가 깊다고 한다. 특별히 화수목 요일별로 민족을 위한 기도회와 열방과 교회를 위한 기도회,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다. 또한 선교부에서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시니어 선교학교를 나누어 선교를 하고 있다.

bhkim0691@gmail.com



KAPC 필리핀 선교단 일행 뉴욕방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총회 참석차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필리핀 선교사 일행들은 총회가 마련한 (영생장로교회)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이동했으며 뉴욕관광을 마치고 귀환했다. (유원정 기자)

선교 소식

통일 북한선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도소식을 전합니다.

속임의 역사가 망하게 하소서

북한은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국가입니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억압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억압한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해외동포들에게까지도 속임과 갈취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짓선전에 의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북조선 귀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지상 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한 북한에 속아서 들어간 재일동포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9만명 이상의 재일동포 가족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유는 있었으나, 마음대로 북한 땅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자유를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던 그들은 자유를 그리워하다가 수용소에 끌려가고, 오지로 추방되고, 혹독한 차별과 감시를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외부세계를 향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진정한 모습은 진실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정권에 이익이 되는 것을 얻고자 과장해서 보도하고 헐뜯까지 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제스처를 썼다가도 얼마 안 있어서 핵이나 전쟁 위협을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변덕스러운 모습 이면에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짓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사람은 음흉함을 감춘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그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욕심을 감춘 비겁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군사적 협박을 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결국은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거짓과 억압을 자행해 온 북한 권력의 악함이 속히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평화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의 삶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NIM / 임현석 목사 드림 / blessnk@hotmail.com

노년부 따로 떼거나 65세 이상 분리개척... 능동적 사역주체로 조기 은퇴한 직분자들, 새로운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회 섬겨

율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와 가톨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사회 보다 훨씬 빨리 늙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니어 신자들을 위한 노인 사목, 또는 노인 목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비단 한국에서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곳 미국 교회나 한인 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개신교의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나,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될수록 노인 신자들이 많고, 10년 전만 해도 농어촌 교회는 젊은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데, 지금은 대도시도 교육부서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섬겼던 이민교회에도 150명 교회인데 아동부, 학생회가 없어지고 청년 몇 명만 남은 교회가 되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만 그럴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 중 상당수가 필

자가 시니어들이다.

그동안 교회들은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다 아낌없이 재정이나 열정을 쏟아 부었다. 이에 반해 시니어들에게는 효도관광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했었다. 문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똑 같은 프로그램은 유지하고 있다보니, 고령화 시대에 맞게 예배나, 교회조직을 갱신하는 데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노인 목회를 새로운 차원에서 시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소개할까 한다. 여기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다.

선교적 사역 방향

미국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비중이 14.8퍼센트(세계일보 SEGTE.com kwoo 2015.09.21)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미주 한인 교회는 대체적으로 노인들을 바라본 시각들은 무관

노년부를 아예 따로 떼어 내어 독자적, 독립적인 노인목회를 통해 노인들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http://www.sarang.com)

가 있다. 노인들을 교회의 조직에서 과감히 분리하여 그들에,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독립된 형태의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헌금도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예배도 노인 분들 중에 약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다. 또한 예배당 뒤에는 전문가와 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언제 마실 수 있는 음료와 다과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도 준비해놓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서를 담당 목사님이 계셔서 예배 시간에 설교 및 상담도 하고 계신다. 여기에는 은퇴하신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용을 한다는 것도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는 2012년 12월 국내 최초로 65세 이상 신자들만의 교회를 따로 세워 분리 개척했다. 교회 이름은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선교 편지

일본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삼상6:12)

저희는 선교지로 떠나야 할 때 익힌 습관대로 “매일성경”의 본문을 묵상합니다. 30여년을 선교지에서 보냈으니 다섯 번 정도는 위 본문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홀로 능력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심을 봅니다. 젓 나는 암소 두 마리가 송아지를 뒤에 두고 줄 곳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울어 슬픔을 참을 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벤세메스의 언덕 길을 올라 목적지에 도달하고 자신들이 제물 되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이 두 암소 같은 길이었으면 하고 묵상합니다. 4살과 6살이던 아이들을 데리고 고국을 뒤에 두고 떠나야 할 때 저희 부모들은 어린 손자들이 보고 싶어 목이 메이었고, 저희 또한 지인과 지척이를 기숙사 학교로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참으며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오야마 히데야스(青山英保) 집사는 그의 나이 70이 가까워옵니다. 젊은 날 고교시절 인생의 허무를 발견하고 견딜 수 없는 공허에 쌓였을 때 복음을 듣고 회생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한때 그를 양육했던 양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우리와 공통점보다는 그가 주

님을 위해서 일생을 온전히 드리며 살려는 헌신이 의기투합하여 동명 국제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결혼을 생각하며 사귀는 여인이 있었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여 가정을 갖는 것도 포기하고 순결한 총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에 메이지 않는 자유업을 하며(정소일) 최소의 생활비로 자신의 생계를 메우고 나머지를 주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항상 전도지가 비축되어 시간이 나면 사람이 몰려 있는 역으로 나가 그것을 전달하고 개인 집의 우편함에 복음을 전달하며 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년 늙어 가는 외모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감추인 소망 때문에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聖徒)입니다.

요시오까노리코(吉岡典子)와의 만남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가 가나자와(金澤)에서 사이다마(埴玉) 국립대학으로 진학하여 만난 것입니다. 꽃다운 미모의 여대생이 신문배달을 하는 장학생으로 지원을 하여 동경 외곽으로 온 것입니다. 마침 저희는 두 번째 팀으로 무사시우라와(武藏浦和)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있었던 터라 그녀와의 만남은 가뭄의 단비 같은 신선함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아파타를 오르내리며 집집마다 조간을 배달하고 오후에는 다시 석간을 돌리는 일과 학업 때문에 주일예배에 출석하여 조는 날이 많았지만 그녀의 건강한 다리와 왕성한 식욕은 젊음과 근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작년 초입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알게 되었다고 금요일 저녁

도회에 참석했는데 전과 다른 가벼운 여인이 되어 있어 열린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안식년으로 떠난 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근무하는 학교에서 기미가요(일본애국가:일본왕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칭송)를 강요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신앙고백이 용납되지 않아 철밥통 직장을 버리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고난의 길



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작년과 금요일 저녁 태국과 캄보디아에 단기선교여행을 다녀온 그녀는 정년 이 땅에서 선교의 일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남은 임기를 잘 정리하고 물러서야 할 때가 되어갑니다. OMF 선교사로 일본에 들어와 북해도의 타키카와(瀧川)와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의 개척교회 사역들과 동경북부교회에서의 목회사역, 이어서 시작한 동명국제교회를 섬기는 동안 현역으로 주어진 날들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수를 다 허락하신다 해도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것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일군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자라 안수 받은 몇몇 목사님들이 있지만 현재로는 동명국제교회에 돌아올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를 이어 섬기게 될 사역자들이 어느 곳에서 주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합당한 주님의 종이라면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의 가부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희가 현역으로 있는 사이에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군들을 파송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제목**
1. 최후까지 주님의 성령에 불들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2. 6월 초부터 시작되는 세계한인선교대회(미국 LA)의 만남과 나눔의 시간들을 위해
 3. 2주간동안 선교대회 후 자녀들과 갖게 될 잠깐의 만남에 주님이 위로를 주시도록
 4. 저희가 떠나있는 동안 교회를 목양할 김은수 교수(G.R.S 학장)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서
 5. 교회에 필요한 일군들을 채워주시기를(통역자,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영어학교 사역자)
 6. 7월 25일-30일까지 진행되는 어린이 여름영어캠프의 준비와 진행
 7. 둘째 아들(지혁)의 결혼을 순조롭게 인도해주시기를
- 한없는 사랑과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동경에서 김신호, 문옥남(지연, 지혁) 드림
shinhokim@hotmail.com

GP선교회, 선교활동 백서 펴내

한국 선교사 개도국·이슬람국가 사역현장 생생히 담아

GP선교회(GP·대표 장영호 선교사)는 지난 27일 516쪽 분량의 'GP 선교사역 백서'(사진)를 출간했다. 2005년 첫 발행 이후 세 번째다. 기록과 보관에 취약한 한국교회 선교현실에 소속 선교사들의 활동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서는 GP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역과 열매를 소개했다. 교회 전방격적 학교 문화 공출 특수 국제화 훈련 등 8개 분야, 37개 현장의 사례다.

브라질에서 '선교적 교회 개척 사례'를 소개한 김선웅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해 10년을 주기로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넘겼다. 현지 교회는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 전파의 '재생산'을 이뤄냈다. 김 선교사는 95년 브라질의 베이지 플로르 지역 산골 마을에 '헬몬교회'를 세워 10년 만에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넘겼다. 헬몬교회는 10년간 유치원 교육 등으로 어린이들의 문맹률을 낮추고 학업을 중단한 청년들을 교육시켜 고교 과정을 마치게 했다. 김 선교사는 2005년 엔 파보양교회를 개척, 역시 10년 만인 지난해에 리더십을 이양했다. 김 선교사는 이 기간 지도자 양육에 초점을 두고 선교 활동에 매진, 지금은 교회 청소년들 상당수가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 됐다.

A국의 진보 선교사는 전 세계 이슬람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변화를 소개했다. 진 선교사는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인 사역자에 의한 대화식 전도법으로 2만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고 1500개 이상의 모임이 새로 생겼다"고 보고했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선 한 명의 무슬림이 변화돼 개종했는데 그가 다시 수백명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



어져 지금은 1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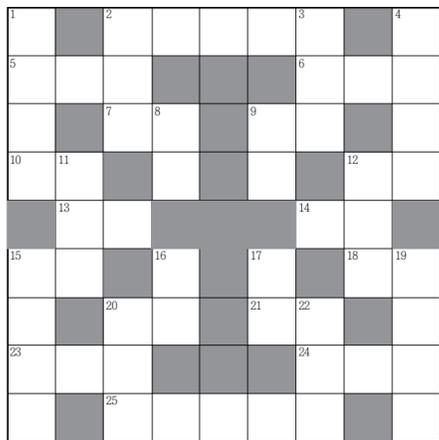
진 선교사는 "이슬람이 강력하게 테러를 일으키고 오일머니를 통해 이슬람을 확산시키므로써 전 세계가 곧 이슬람화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 세계 무슬림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우리는 겸손하게 현지 문화를 배우고 무슬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에선 한국교회 선교가 처한 위기 상황도 드러났다. 선교사 고령화 현상으로 GP 선교사들의 평균 나이는 남성 50세, 여성 49세로 나타났다. 20대는 모두 단기선교사였다.

GP선교회는 국내 최초의 자생 선교단체로 한국지구총선교회와 해외협력선교회가 99년 통합해 출범했다. 초교파적 선교단체로 한국과 미국, 브라질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다. 세계 37개국에서 359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십자말 • Cross Word (127)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2. 고린도교회의 신도로 바울이 이 사람 집에 유하며 전도했다(행 18:7).
5. 갈고랑이의 준말(출26:6).
6. 다락에 달린 문(삿3:24).
7. 오므리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다(왕하9:8).
9. 객인(눅5:34).
10. 안전하게 잘 보호함(롬11:18).
12. 논밭에서 거둔 곡식(창41:47).
13. 서로 다투어 토론함(요9:3).
14.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로 됨(대하20:36).
15. 씩씩하고 강한 기상(삼상16:18).
18. 향 냄새(아4:11).
20. 우리 신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마4:17).
21. 여름에 계속해서 내리는 비(겔34:26).
23. 아버지의 말형(레20:20).
24. 스킨론에 있는 레위족의 한 성읍(수21:34).
25. 예후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통치함(왕하14:17).

<세로 푸는 열쇠>

1. 유다왕 시드기야 9년, 싸움에 참전한 느브갓네살 군대의 한 방백(렘39:3).
2. 유대족속 여하렘렘의 아들(대상4:16).
3. 구브로와 함께 연결된 헬라의 국가(창10:4).
4. 집 속에만 박혀있어 세상밖에 나가지 아니함(느6:10).
8. 꼭 알맞음(렘4:1).
9. 제 손으로 친히(출35:25).
11. 싸움에 있었던 모든 사실의 기록(민21:14).
12. 구약 성막의 증거궤 앞에 배열하는 특별한 향료였다(출30:34).
15. 온통 하얗게 센 머리(고사성어).
16. 일의 끝장(벧전1:9).
17. 별 넷 장군(나3:17).
19. 르우벤 지파가 점령한 시혼의 한 성읍(렘48:23).
20. 찬송가 280장. OOO 의지 없어서...
22. 솔로몬의 군량을 두었던 고을의 한 부분(왕상4:9).

십자말 정답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머그컵

타올

전문 교회/매장/기타단체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제 3장 사모의 인품과 교양 및 에티켓

인품이란 한 개인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말로서 한 인간의 성품과 인격 위에 품행 을 결부시켜 나타내는 말을 인품이라 할 수 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인격적인 품위를 지니고 있는 사모를 인품 좋은 사모라고 한다.

랑을 가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 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은 사랑해야 한다. 사랑 앞에는 대적도 원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4:8).

(4) 아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하며 죽고 또 죽자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

있는데 그것은 활짝 핀 꽃과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이다. 그리고 주님께 의해서 세워진 두 기관은 모두 거룩한 신적인 기관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3)



이희숙 사모

1. 성품

사모가 모든 면에 정중적이고 거칠고 날카롭고 비판적이라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사모는 모든 면에 절제하고 니그리워야하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해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많은 성도들과 부딪치지 않고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모가 날카롭고 사나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신도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한 것처럼 사모도 날마다 죽어야 살고 죽어야 승리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10:36).

3. 언어(말씨)

상냥하면서도 언어에 무게가 있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4. 사모의 외모(맵시)

1) 검소한 모습

사모는 자기가 속해있는 환경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적합한 몸차림을 해야 한다. 사모는 한 여성으로

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항상 가정을 파괴하고 지도자인 목회자를 넘어뜨려서 교회를 파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왜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자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목회 지역은 직, 간접으로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가정문제와 교회문제가 직결되어있다. 그래서 목회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곳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승리하는 목회의 여부는 원만한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목회자가 가장 먼저 성공해야 하는 경기장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자 가정이 교회의 영성

특히 이민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고생을 한 후 큰 교회를 다 이루어 놓고 안정된 목회를 즐기려 하는 시점에서 여자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

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모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인격을 빛나게 해주는 요소들

(1)강한 믿음의 영성: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 해주신다. 사모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신 사랑, 용서, 희생, 승리에 대한 감격을 체험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서 자신의 몸단장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너무 구애를 받아 지나치게 검소하면 남루하고 초라하게 보이기 쉽다. 그리고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무시당하기 쉽다.

2) 지도자다운 모습

사모는 남편이 교회를 대표하는 자도자의 아내로 외부에 소개되기 때문에 단정하고 고상하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되게 자신의 외모를 가꿀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거나 사치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예의를 가출 것(친절과 인사성)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성실하고 진실로 대함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을 이루고 결국 교인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또한 가정은 인격을 연마하는 학교이며 지상의 낙원인 동시에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이다. 가정은 평화와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목회자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사모의 임무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도 목회에 성공을 했다 해도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턱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결국 목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고생을 한 후 큰 교회를 다 이루어 놓고 안정된 목회를 즐기려 하는 시점에서 여자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정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본다.

hslee39@sbcglobal.net

제 2부 목회자 가정에 대한 사모의 임무와 역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가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그 여자는 충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삼상25:3-23)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관계를 맺었던 다윗이 화가 났습다. 나발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모욕에 그만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에 한 남자도 남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4백백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 남편 때문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가일은 즉

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큰 실수를 막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가일은 “충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뛰어난, 명철한”이라는 뜻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지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주님께로 나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화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삼상25:18-23)

계속해서 생각해볼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아버가일은 완악한 남편 때문에 온 가족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18절, 23절을 보면 “급히”,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아버가일이 급히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으면 머뭇거리면 사이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아버가일은 다윗에게 달려감으로써 살 길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가일은 지혜로운 성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길은 내가 머뭇거리면 안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빨리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살길이요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삼상25:23-28)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철저히 모든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23, 24, 28상반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편의 잘못을 철저히 “나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가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두둔하고 잘못된 길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남편에게만 돌림으로써 남편이 더욱 완악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가일은 남편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 먼저 다윗에게 “내가 죽을죄를 지었으니 나에게 그 죄를 돌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삼상25:24-28)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지혜로운 아내의 책임은 남편이나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다른 데 책임을 돌리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버가일은 미련한 남편이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 내가 옆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내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중심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서로 내가 책임을 느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금 여오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신 때에(삼상25:29-33)

아버가일은 화가 나있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해 다윗의 실수를 막아주었습니다. 30, 31절 권면을 요약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 이 나라의 왕이 될 분이신데 미련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점을 남길 일이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0% 아버가일의 말을 받아들

고 자신의 실수를 이 여인을 통해서 막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서로 권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가일은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아닙니까?

토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삼상25:34-38)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는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6, 37절을 보면 “말씀” 아버가일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발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왕이 된 것같이 큰 잔치를 벌이면서 취해서 기분 좋아 있었습니다. 아버가일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소간 말하지 않았

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말로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감정을 실어서 말하니까 결국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그저 가만히 침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Kumran, Dundeon, Roman, Saeiten, Seungmun, Seungsil, Seungil, Sujeong, Seungdo, Sison, Singil, Sintcheon, Sintchon, Anam, Yangok, Wangseong, Jangwe, Juang, Chuang, and Chungsin churches.

UMC총회 세계선교부 17년 사역 김종성 목사 희귀 혈액암 진단

미국연합감리교(UMC)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김종성 목사 골수 기증을 위해 UMC 한인목회자들이 뭉쳤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김은천 목사(퀸즈중앙감리교회), 고석천 목사(UMC은퇴, 호프파운데이션 이사), 이용보 목사(뉴욕한인교회, 코커스한인교회 회장), 조건삼 목사(뉴욕연회 코커스 회장) 등이 참석해 '골수섬유증(Myelofibrosis)'이라는 희귀 혈액암 진단과 함께 2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종성 목사에게 골수를 기증할 한인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 골수은행에서 2-3명 일치 가능성을 찾았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로그를 이 끌어왔다.

총 무로 일하면서 캄보디아에는 140개 교회가, 베트남에서는 2002년 첫 선교사 파송 후 250개 교회가 세워져 활발



김종성 목사

“아주 특별한 사랑 실천...골수기증자를 찾습니다”

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는 취지로 골수 기증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먼저 6월 5일(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골수 등록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새생명재단(회장 김세진



김종성 목사 골수 기증을 위해 뭉친 UMC한인목회자들. 왼쪽부터 김정호 목사, 김은천 목사, 고석천 목사, 이용보 목사, 조건삼 목사.

원장)이 함께하며, 교인은 물론 뉴욕지역에 사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어 뉴욕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와 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가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골수기증 등록은 18-44세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간단한 방법으로 골수를 등록할 수 있다.

면봉을 이용해 입속에서 약간의 조직 샘플을 채취한 후 전세계 골수 기증 등록자 명단을 통해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다. 일치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조직검사를 하며 기증자의 동의를 거쳐 수술할 수 있다.

골수 기증 후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성 목사는 연합감리교 세계선교부(GBGM)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무로 지난 17년간 연합감리교의 아시아 선교를 총괄했다.

뛰어난 선교 전략가인 김종성 목사는 한인교회는 물론 미국교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 선교 프

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는 2010년 백혈병 증상에도 불구하고 네 팔에 갔다가 LA를 거쳐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혼절, 비행기가 시카고에 비상착륙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 목사는 8개월간의 집중치료와 재활을 거쳐 회복했지만 또다시 선교지로 갔고 결국은 한계에 달해 2014년 은퇴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선교단체 'Hope5L2F 재단(www.Hope5L2F.org)'을 설립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선교 노하우를 활용해 '선교지의 경제 자립'을 목표로 현지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종성 목사는 로체스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시 풀링을 받고 드류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M.Div)를 받았으며,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해 섬겼다 1997년 GBGM에 들어가 선교에 헌신했다.

골수기증에 대한 문의는 새생명재단 김세진 내과의사(718-640-5443), Hope5L2재단 고석천 목사(201-602-5505)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같은 곡조, 화음으로 노래하기!

리더십저널, 교회비전 컨설턴트 윌 맨시니의 교인 조율법 소개

윌 맨시니(Will Mancini)는 지역교회에서 치열한 현장 사역을 경험한 후, 소명을 따라 비전의 명료함에 초점을 맞추는 최초의 컨설팅 사역단체 '옥사노(Auxano)'를 설립했다. '명료함의 전도자'로서 그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등 교파를 초월해 수백 개 교회들에게 고유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는 비전 건축가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교회마다 독특한 목적이 있을 때, 건강한 발전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교회들이 교회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주변문화에의 참여를 강조하도록 인도한다. 그는 각 교회가 그만의 특별한 가치, 생각, 자세, 활동 등을 반영하는 문화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DNA를 발견해 성도들의 유일무이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노래가 딱 한 곡이고, 모두가 그 한곡만 평생 불러야 한다면 매우 심심할 것이다. 그래서 각기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때에 따라 상황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른다면 이는 또 소음이 된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곡조를 화음에 맞춰 공명하며 부르는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로 조정 과정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들을 끈끈히 이어주는 마음의 조화가 없다면 소그룹은 금방 역동을 잃고 사역이다. 사역 중에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대화를 위해 사역의 속도를 늦춰보기도 해야 한

소그룹의 역동성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지다. 각기 자신의 개성이 발현되면 소그룹은 더 풍성해지지만, 그 다양성은 서로 충돌하도록 동시에 자기 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서로에 맞춰가며 조화하는 시의적절함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소그룹이 서로 맞춰가



교회 고유 DNA 발견, 지역사회와 주변문화에의 참여 강조 마음을 조화하는 대화 시간 갖고, 긍정적 No의 원칙 지켜

는 조화의 비밀을 확보할 수 있을까? 조화는 한 사람이 강하게 끌고 가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화는 단순한 역할분담이 아니다. 노래를 부를 때 어떤 파트를 부를 지 배분하고 실제로 그 배분의 계획에 따라 노래를 불러 낼 수 있다. 그러나 다 같이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것, 눈빛을 교환하며 노래에 담긴 감정을 공유해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소그룹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각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역할 분담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각기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조화는 조정이 아니다. 조정은 생각과 행동이라는 외면적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조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조정과 조화는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화는 의사소통의 조정과 구조적 조정이라는 조정의 두 과정을 하나로 잇는 유기적 연결 요소가 된다. 소그룹이 함께 움직이려면 의사소통과 구조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공적으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의 과정을 조화의 연결로 묶어낼 수 있는가? 이는 리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말로 그 어느 한 구성원 혼자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 이는 너무나 다양한 인격 간에 상호 작용이 필요한 일하기에 그렇다. 그래서 비록 명확한 방법론을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명확하다.

첫 번째는 대화가 필요하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으로 깊이 들어가는 대화가 필요하다. 비록 같은 소그룹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귀를 닫고 대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상대가 들어주길 원한다. 토론과 대화는 구분된다. 토론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듣고 인정하길 원하는 것이지만, 대화는 모두가 서로 말한 바를 들어주는 것이다. 토론은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만, 대화는 모두가 승자이다.

대화는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분주히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경청하는 대화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소그룹은 분명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같은 방향으로 가기 원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조화의 과정은 같은 방향으로 가길 원치 않는 의견까지 모두 제한 없이 수용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대화는 긍정적인 No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 No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랑에서 비롯돼 사랑을 향해 자라는 것이다. 긍정적 No는 공격적 태도로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감정과 이해 상황을 배려하여 극한의 인내심으로 기다리면서도, No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절은 항상 다른 더 큰 Yes에 뿌리박혀 있어 상대가 선택할 긍정적 옵션을 남겨두어야 한다.

결론으로, 소그룹이 계속해 마음을 조화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긍정적 No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한 곡조를 화음에 맞춰 노래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민병주 성가작곡 발표회

제 2회

시편 찬양제

일시 2016년 6월 18일(토) 7:00 PM
장소 벨리 한인 커뮤니티 교회
15089 Roxford St., Sylmar, CA 91342
TEL.(818)367-2077



담임 이준우 목사



민병주
작곡/지휘



유은실
1부 피아노 반주



남호경
게스트 피아니스트
2부 피아노 독주
3부 피아노 반주

